

# 브라보 안산

## BRAVO ANSAN

안산시 시정소식지 제 459호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사랑과 정이 넘치는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여기는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입니다!!

### 02~04

시민과의 아름다운 동행 100일  
'젊은 창업가의 도시' '에너지 자립' 등 5개 분야  
100대 공약 발표, 민생 현안 57건은 별도로 관  
리한다.

### 06

해양관광 · 레저 도시로  
급부상하는 안산

윤화섭 시장, 프랑스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투  
자설명회 참석해 안산시 관광자원에 대해 설  
명한 후 전용 마리나 시설 시찰 위해 스페인  
까지 방문한 성과

### 10~13

제33회 시민의 날 기념식 '성황'

지역발전에 힘써 온 시민 45명에게 모범시민  
상을 수여했으며 제21회 안산시 중소기업 대  
상 과 더불어 안산시 문화상, 최용신 봉사상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 14~15

내가 안산을 사랑하는 이유

시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들이  
보내온 편지글. 자전거 타기 좋아서, 안산천에  
서의 추억 때문에, 녹지 공간이 많아서 등등  
안산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 22·25

동네소식

해양동, 성공적으로 끝난 '하하호호 락(樂) 축제'  
호수동, '레이크댄스' 팀, 주민자치 '대상'

가을 커피 향에 취(醉)하듯  
안산의 모든 정보를 취(取)하다.

**안산소식 e-브라보안산**

네이버 검색창에 '브라보안산'을 쳐보세요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blog.naver.com/cityansan instagram.com/ansancity

DREAM TV www.ansandream.tv

발행일 2018년 10월 24일 발행인 안산시장 윤화섭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iansan.net e-브라보안산 www.bravoansan.net

DREAM TV YouTube NAVER TV KakaoTV 안산드림TV

살맛 나는  
생생도시 안산



윤화섭 안산시장

# ‘시민과의 동행’ 100일 기념 100대 공약 ‘확정’



민선7기 안산시 윤화섭號가 뜻을 올린 후 100일이 지났다. 7월 2일, 취임식은 조촐하게 진행됐다. 장소도 애초 장애인복지관에서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안산시청 재난상황실로 변경했다.

이날 윤화섭 시장은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등 시민 대표 3인을 초청하고 ‘시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선포했다. ‘취임식이 아닌 임명식’이라 명명하며 시민의 명령과 그에 따르는 소명 의식을 강조했다.

그렇게 시작된 첫 걸음은 ‘역대급 폭염’을 극복하기 위한 분주한 발걸음으로 이어졌고,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거쳐, 8일 100일을 맞았다.

윤화섭 시장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100대 공약을 확정·발표했다. 또한 별도로 민생 현안 57건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00일 동안 이뤄낸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힘 있게 추진될 공약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 ‘젊은 창업가의 도시’ ‘에너지 자립’ 등 5개 분야... 민생 현안 57건 별도 관리

### 시민을 중심에 둔 창의(創意) 행정, 전국 최초 성과로 이어져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추진된 사업들이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창의 행정의 모범이 되고 있다. 전국 최대 다문화 도시라는 특성에 맞게 외국인 아동들의 어린이집 보육료

를 지원하기로 하고, 만 3~5세 누리과정에 다니고 있는 등록 외국인 아동들에게 매월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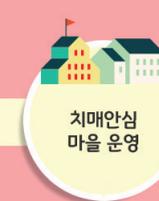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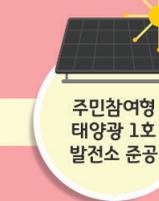
이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학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사립 월 22만 원 공립 월 6만 원을 지원한다.

단원구 선부1동 연립주택 단지 8개소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운영한다. 전담 인력 12명과 자원봉사자 5명 등 총 19명을 투입, 마을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 및 사후 관리까지 책임진다. 치매 예방교실, 방문 상담, 맞춤형 사례 관리 등도 마련했으며 치매환자 대상의 쉼터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인 1호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안산정수장에 건립했다. 안산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주민 참여 방식으로 총 4억 원을 투입, 정수장 침전지 상부에 207kw 용량의 발전 시설을 설치·완료했다. 매년 4천900여만 원의 수익금을 예상하고 있다.

### 시민을 중심에 둔 창의 행정

전국 최초로, 안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만 3~5세 월 22만 원	 외국인 아동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공립 6만 원 사립 22만 원	 치매안심 마을 운영 8개소 389명	 주민참여형 태양광 1호 발전소 준공 207kw 매년 4천900만 원 수익발생
---	---	---	--

### 삶의 희망을 주는 안산形 복지정책 추진

구석구석 세심하게 닿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시행 3학년 우선 시행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무상 지원 2019년 12,744명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 용품 지원 만 11세 ~ 18세 청소년	 성곡동 반려견 놀이터 개장 단원구 성곡동 3,118㎡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선정 2018.8월 평생교육 정책 공유 및 협력
---	--	--	---	--

### 산업과 경제 활성화 위한 기반 마련

**7천 500억원**  
창업 및 노동환경 개선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산업통상자원부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선정!  
5대 핵심공약 중 1호 공약이 달성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p><b>안산 사이언스밸리 강소특구 지정 추진</b></p> <p>30만평규모 매년 100억 원 예산지원 기대</p>	<p><b>기업SOS 이동시장실 운영</b></p> <p>매월 1개 업체 기업애로 사항 해소</p>
<p><b>소상공인 맞춤형 사업 추진</b></p> <p>노후상가활성화 10억 원 경영개선 150개 점포 자금지원 50개 점포 마케팅 지원</p>	<p><b>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청년 정책 추진</b></p> <p>청년 큐브 청년 창업벨트 조성 청년정책위원회 운영</p>



四川省乐山市与韩国京畿道安山市签署友好合作  
인민국 경기도 안산시와 중화인민공화국 쓰촨성 리산시간 우호협력도



- ① 윤화섭 안산시장(가운데 왼쪽)이 7월 12일 선부1동 성동연립에서 진행된 '안산시 지정 제1호 치매안심마을' 현판식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② 윤화섭 안산시장(오른쪽)이 7월 23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시와 중국 쓰촨성 리산시 간 우호협력도시 관계수립 협약'을 체결하고 장통 리산시장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③ 윤화섭 안산시장(왼쪽 가운데)이 8월 30일 성곡동 소재 ㈜일신화학에서 '기업 SOS 이동시장실' 간담회를 갖고 기업 및 노동자들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 ④ 윤화섭 안산시장(오른쪽)이 9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신규 회원 도시 선정 인증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교육 · 청년 · 안전 · 협치에 '집중'... 플랫폼 조성 통한 기틀 마련 '가시적 성과'

##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총력

민선7기 5대 핵심 공약 중 첫 번째였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이 정부 발표에 따라 힘을 얻었다. 국비와 민간자금 등 총 7천500억 원이 투입돼 창업과 노동환경 개선 등에 지원된다.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유입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민선7기 윤화섭 시장의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산사이언스밸리를 강소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구 지정이 되면 안산스마트허브 등 산업단지와의 연계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및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SOS 이동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는 신념으로 청년 정책협의회 운영 등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도시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 재생 정책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이 떠나지 않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 재생을 계획하고 있다.

첫 성과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상록구 율피동 광덕마을이 선정됐다. 대학타운형 사업으로 총 예산 182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청년주택 지원, 창업지원센터 건립,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한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포럼'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한다.

안산시 부시장과 관련 부서장, 시·도의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포럼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시재생의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는 대학 과정도 마련했다.

최근에는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의 협약으로 유희 부지를 활용한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을 이끌었다.

### 도시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 재생 정책

안산 곳곳을 다듬어, 공생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b>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b> 상록구 율피동 지역 182억 원 청년주택지원 창업지원센터 건립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b>유희부지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업무협약</b> 2019년 6월까지 상록구 부곡동 3,300㎡ 50면	<b>주민과 함께! 도시재생포럼 도시재생대학</b> 전문가 100여명 참여
<b>공공건축물 패시브하우스 시범사업 업무협약</b> 2018.8.6.협약 결약형 공공주택 확대	<b>세계음식 플랫폼 조성</b> 단원구 원곡동 지역 홍보관, 전시체험관 등 조성 청년창업 및 일자리사업 연계	<b>대송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b> 서해안권 신성장 거점 지역 구축

### 대규모 국제대회 개최 등 마이스산업 부흥

MICE?  
 Meeting(회의)  
 Incentive trip (포상관광)  
 Convention (컨벤션)  
 Exhibition & Events (전시와 이벤트)

다양한 행사를 유치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b>세계 외발자전거 대회</b> 33개국 1,194명	<b>2018 제1회 안산컵 국제 친선 태권도 대회</b> 16개국 500명	<b>2018 제9회 전국해양문화 학자 대회</b> 전국 해양학자 300명	<b>독일 아헨 특구시와 경제협력 세미나</b> 2018.9월 기술 협력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	--	---

## 교육 · 협치도 강조... 플랫폼 조성 통한 기틀 마련 두드러져

‘청년 창업 지원 플랫폼’ ‘세계 음식 플랫폼’ 조성 등을 발표하며 기본과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부하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 중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결정하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 을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평생학습 관련해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협치를 위한 경기도의회 · 안산시의회 의원들과의 정책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독일 아헨 특구시와의 경제협력도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안산시 대표단이 중국 러산 시를 방문해 상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 문화사업 안산시장, ‘시민과의 동행’ 100일 기념 100대 공약 ‘확정’ “살맛나는 안산 위한 길잡이라는 여정, 시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갈 것”

## 경제 · 일자리 · 자치 · 교통 · 에너지 · 복지 등 100대 공약 확정

시는 최근 민선7기 공약사항을 공유 · 일품 · 청정 · 행복 · 참여도시라는 5대 시정방침에 따라 총 100건으로 확정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민선7기 임기 내 내실 있는 성과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100대 공약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분리했다.

‘**젊은 창업가의 도시, 안산**’을 위해 벤처창업단지 조성, 사동 준공업지역 미래산업 클러스터 육성, 지역화폐 발행, 대부도 마리나항 개발, 본오돌 미래형 스마트팜 개발 등을 추진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안산**’을 목표로 ‘누구나 시장’ 협업 행정, 시민 온라인 투표 앱 운영, ‘생생토크’ 시민포럼 운영, 청년 소통 공간 마련, 노동안전보건지원센터 설립 등을 준비하고 있다.

‘**사통팔달 스튜디오 안산**’이라는 주제로 안산선 지하화 및 역세권 공영개발 추진, 서해안 교통 허브역 조성, 버스 준공영제 실시, 랜드마크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다.

‘**에너지자립, 안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1기가 프로젝트, 안산가상발전소 설립, 공공형 에너지 슈퍼마켓 설립, 생태탐방 자전거 올레길 조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걱정말아요, 안산**’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300만 원 지원, 출산연금 지원, 100원 행복택시 운영, 청년 구직수당 지급, 안산시 동물보호센터 설치 등도 구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는 100대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민생 현안 57건에 대해 별도 관리할 계획으로, 하수처리장 현대화, 안산시 오투기센터 설립, 생활기술학교 운영, 이동식 재난구호주택 보급, 장애인 ‘꿈의 버스’ 운영, 미세먼지 전담부서 설치 등이 포함됐다.

문화사업 시장은 “지난 100일은 마치 단거리 선수처럼 목적지를 향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안산시를 어떻게 이끌고 발전시켜야 할지 분명한 길잡이를 만들고자 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이루었다. 시민과 함께하는 100일의 여정은 비록 짧았지만 매우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선7기 안산시가 젊음과 혁신을 기반으로 시민 모두가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100대 공약을 확정 · 발표하고, 이를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 저와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시가 무럭무럭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여정에 동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시민 여러분만 보고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젊은 창업가의 도시 안산’

벤처창업단지 조성, 사동 준공업지역 미래산업 클러스터 육성, 지역화폐 발행, 대부도 마리나항 개발, 본오돌 미래형 스마트팜 개발 등 22건





### ‘시민이 참여하는 안산’

‘누구나 시장’ 협업 행정, 시민 온라인 투표 앱 운영, ‘생생토크’ 시민포럼 운영, 청년 소통 공간 마련, 노동안전보건지원센터 설립 등 14건



### ‘사통팔달 스튜디오 안산’

안산선 지하화 및 역세권 공영개발 추진, 서해안 교통 허브역 조성, 버스 준공영제 실시, 랜드마크 건립 등 24건





### ‘에너지 자립 안산’

신재생에너지 1기가 프로젝트, 안산가상발전소 건립, 공공형 에너지 슈퍼마켓 설립, 생태탐방 자전거 올레길 조성 등 17건



### ‘걱정말아요, 안산’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300만 원 지원, 출산연금 지원, 100원 행복택시 운영, 청년 구직 수당 지급, 안산시 동물보호센터 설치 등 23건



### 민생현안 57건 특별 관리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및 벤처단지 조성, 안산시 오투기센터 설립, 생활기술학교 운영, 자전거 등록제 도입, 이동식 재난구호주택 보급, 장애인 ‘꿈의 버스’ 운영, 미세먼지 전담부서 설치 등



## 안산시, 국내 최고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한다

### 4개 대학 등 지역 자원과 연계... 창업벨트 확대 · 구축해 경쟁력 강화



안산시는 지난 9월 27일 창업지원센터인 '청년큐브 시네랩안산(단원구 초지동 소재)'에서 지역 내 대학 및 창업 관련 기관과 함께 안산시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 확대를 통해 창업지원 정책을 적극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안산대, 신안산대, 서울예술대 4개 대학 총장 및 부총장과 경기테크노파크, 청년창업사관학교,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중진공 창업후보육(POST-B) 기업 등 관련 기관장들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안산 지역 내 4개 대학을 비롯해 우수한 창업지원 시스템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 각 기관이 모두 협력하여 안산시 창업벨트를 확대 · 구축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각 기관의 우수한 자원들을 공유하는 등 지원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안산시의 창업지

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참석자들은 ▲안산시 창업벨트 확대 · 구축 ▲ 공동 협력사업으로 (가칭)제1회 안산시 창업 페스티벌 개최 추진 ▲ 안산시 청년 창업 & 소통 공간 확대 · 구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윤화섭 시장은 "지역 내 우수한 자원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나 타이드인스티튜트(tideinstitute), 싱귤러리티대학교(singularity University)와 같은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예비 창업기업부터 성장 후 기업까지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여 청년친화형 산업단지인 안산스마트허브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창업 3~7년 차에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운 시기 즉,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고 '스케일 업(Scale-Up, 성장생태계 육성)'할 수 있도록 창업후보육(POST-B)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9년부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최고의 차별화된 창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3월부터 지역 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기관(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 안산대, 중진공 포스트-비아이)과 창업기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통합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 각 기관의 우수한 시설과 장비, 창업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또한 창업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공동 프로그램도 기획 · 추진하고 있다.

## 윤화섭 안산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 안산선 지하화 사업 등 시민 숙원 사업 논의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9월 14일 시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실시했다. 윤화섭 시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민선7기 핵심 공약으로 시민들과 약속한 안산선 지하화 사업과 신안산선 조기 착공 등 안산시 8개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4호선 철도 교각으로 도시가 양분됨에 따라 도시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수도권 순환철도망과 연계해 안산선을 지하화할 수 있도록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 기본구상 용역에 서해선과 안산선의 초지역 직접 연결과 안산선 구간 지하화 추진을 건의했다. 또한, 안산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정상 개통하는 것과 성포-목감 간 추가역사를 실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KD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GTX-C노선의 안산선 공용 사용을 통한 노선 연장 운행과 지역주민과 수리산 등산객 편의를 위한 수암동 개발제한구역 내 공용주차장 조성, 수도권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부도 해안순환도로 개설 사업도 함께 논의했다.

윤화섭 시장은 이날 면담을 통해 "안산은 40년 전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로, 혁신적인 도시개발 정책을 통해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서해안 산업 · 교통 중심 허브로서 안산이 지속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안산이 가진 발전 가능성에 공감하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안산인재육성재단, '고등학생들의 꿈 키우는' 장학금 지급

### 총 938명 대상 7억6천950만 원... 지속적 학업 의지 고취



안산인재육성재단(이사장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0월 1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도 안산꿈키움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은 총 938명의 고등학생(일반고 601명, 특성화고 337명)에게 '안산꿈키움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총 7억6천950만 원이 지급됐다. 이로써 올해 안산인재육성재단에서 지급한 총 장학금은 1천90명 대상 9억9천만 원에 이른다.

안산인재육성재단은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 인재의 발굴 · 육성 및 청소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안산시 출연기업으로,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이 지속적인 학업 의지를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 사업은 ▲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안산꿈키움장학금'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체근로자 교육위탁 장학금' ▲예 · 체능에 재능이 있는 초 · 중 · 고 학생을 지원하는 '문화 · 예술 · 체육 장학금' ▲지속적인 학업의지가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밖청소년 장학금' ▲안산시 제안 · 공모 등에서 채택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디어 장학금' 등 총 5개 분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여러 뛰어난 학생들 사이에서 (내가)선발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장학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안산시와 안산인재육성재단에 감사드린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산시, 최고의 해양관광 · 레저 도시로 ‘급부상’

### 윤화섭 안산시장, 프랑스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투자설명회’ 참석 · 발표



#### 스웨덴 마리나 전문기업과 1천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 체결 ‘성과’

안산시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해양관광 · 레저 도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그 중심에는 대부도 방아머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리나 항만 개발 및 해양관광 · 레저 사업이 있다.

윤화섭 시장은 현지 시간 10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럽연합(EU) 투자가 투자설명회’에 참석, 유럽의 다양한 분야 투자자들 앞에서 직접 대부도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을 포함한 해양관광 · 레저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유럽 순방단의 경제 분야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진행됐다.

이번에 진행된 ‘EU 투자가 투자설명회’는 한-EU 간 투자 협력 다변화와 외국인 투자 상승 모멘텀(momentum, 탄력 · 가속도)을 유지하기 위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2천306억 생산 효과, 762억 부가가치 & 1천389명의 일자리 창출 ‘기대’

주관한 행사다.

윤화섭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안산시는 수도권 인구 2천300만 명을 배후로 둔 접근성과 인천국제공항이나 인천항과의 연계성, 그리고 최근 대규모 마리나가 건설 중인 중국의 산둥반도 등을 감안할 때 환황해(環黃海)를 아우를 수 있는 동북아 최고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슈퍼 요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숙박 및 편의시설을 갖춘 국제적인 마리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호텔과 상업 시설, 마리나 빌리지 등 최고의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가 그 중심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명회에 이어 윤화섭 시장은 스웨덴에 본사를 둔 마리나 전문기업 SF-마리나 그룹의 군나르 오데(Lars Gunnar Odhe) 회장과 안산시 해양 레저 사업에 관한 1천억 원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19일 체결한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에 대한 2천억 원의 투자의 향서 기간을 1년 연장하기도 했다.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SF-마리나 그룹은 대부도와 시화호를 포함하는 안산시 지역에 해양관광 · 레저 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약 1천억 원(1억 달러 규모)을 투자할 계획

이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외국인 투자 유치의 계기로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을 포함한 다양한 해양관광 · 레저 기반 시설들이 빠른 시일 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안산시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해양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이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산시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천306억 원의 생산 효과와 762억 원의 부가가치 그리고 1천389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 스페인 방문... 전용 마리나 시설 ‘시찰’

### 대부도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 투자 기업 ‘SF-마리나’의 시공 능력 · 운영 실태 파악

#### 윤화섭 시장 “안산시 해양 레저 기반 조성에 기여해 줄 것” 당부

안산시는 현지 시간 10월 16일 오전 스페인 바르셀로나 포트벨(Port Vell)을 방문, 마리나 전문기업 ‘SF-마리나’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전용 마리나 시설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최근 안산시 해양레저 사업과 방아머리 마리나 개발에 총 3천억 원의 투자양해각서(MOU)와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한 ‘SF-마리나’의 시공 능력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안산시의 요청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시찰은 SF-마리나의 초대 포트벨(Port Vell) 마리나 총괄 책임자(Marina Master)를 역임한 가브리엘(Mr. Gabriel Sandoval)이 직접 나서 안내했다.

윤화섭 시장 일행은 포트벨(Port Vell) 마리나 내 클럽 하우스, 수상 계류시설, 마리나 배후시설 등을 둘러본 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마리나 시설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했다.

또한, 마리나 디자인 콘셉트, 경관 개선 노력, 시공 시 애로사항, 관리 비용, 운영 수지 등 다소 민감한 부분까지 질문을 쏟아내며 적극적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 자리에서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 주변의 기반시설은 아직 미흡하지만 국내외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해양관광 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며 “안산시 마리나 개발과 해

양레저 기반 조성에 SF-마리나가 크게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가브리엘은 “안산시 사업 파트너로서 관련 기술과 마리나 시스템 노하우 등 해양레저 산업 관련한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에 방문한 ‘포트 벨(Port Vell)’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뒤 다시 돌아온 역사적인 항구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중해 최고의 해양관광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다.





### 안산시, 주민 참여형 태양광 1호 발전소 준공 전국 최초...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4억 원 투입



#### 매년 4천9백만 원 수익금 발생

안산시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사장 이창수, 이하 햇빛발전조합)이 전국 최초로 주민 참여형 태양광 1호 발전소를 안산정수장에 건립하고, 지난 9월 28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윤화섭 시장을 비롯해 김은경 환경부장관,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이창수 이사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발전소는 햇빛발전조합이 주민 참여 방식으로 총 4억 원을 투입해 안산정수장 침전지 상부에 207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매년 4천9백만 원의 발전 수익금이 발생될 예정이다.

안산시와 햇빛발전조합은 '안산 에너지 비전 2030'의 역점 시책으로 시민햇빛발전소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건물 옥상과 상수도시설 등의 유휴공간에 지역 주민이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발전소 13개소 설비용량 1천425kW를 운영 및 건설 중에 있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비전 2030'과 주민 참여형 태양광 선도 사업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이행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끼며,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생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녹색에너지과(031-481-3019)

### 대부도에 수영장 포함한 다목적 체육관 들어선다 시화MTV 토취장 활용... 주민·관광객 편의에 큰 도움 '기대'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대부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10여년 만에 결실을 거둔다. 안산시는 단원구 대부동동 산148-4번지 3만3천㎡ 부지에 체육문화센터와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5일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윤화섭 시장과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체육관은 크게 체육문화센터와 수영장으로 세워진다.

체육문화센터는 연면적 1천730㎡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지며 체육관과 주민 문화시설, 운동장, 테니스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수영장은 연면적 5천230㎡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건립되며 성인풀 10레인과 보조풀, 사우나 시설 등이 만들어진다. 총 공사비 266억 원 중 172억 원은 시화MTV 토취장 활용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한다. 안산시는 94억 원을 출연한다.

현재 대부동동에 거주하고 있는 허 모씨(42세, 여)는 "대부도로 이사 온 지 5년째가 됐는데, 맑은 공기와 뛰어난 자연환경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여기고 있으나 다만 아쉬운 점은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것과, 변변한 문화체육시설이 없는 것이었다"며 "이번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문화체육으로부터 소외된 대부도 주민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이다."고 말했다.

윤화섭 시장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대부도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다. 이번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시작으로 보다 살기 좋은 대부도를 만들어 갈 계획이며,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점차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동 다목적 체육관은 2020년 준공 예정이다.

◇ 문의 : 안산시 도시재생과(031-481-2394)

### 안산시, 소셜방송 활용 시민과 적극 소통 안산드림TV, 오토캠핑장에서 '여왕들의 수다' 생방송 진행

#### 윤화섭 안산시장, 탤런트 이광기 씨 특별출연... 시민들과 실시간 대화



안산시는 지난 10월 10일 안산화랑오토캠핑장에서 윤화섭 안산시장과 안산시 관광홍보대사인 탤런트 이광기 씨가 특별출연한 가운데, '가을 캠핑'을 주제로 생방송을 진행했다. '여왕들의 수다(MC 박미경, 박지영)'라는 프

로그램이다. 안산지역 대표 '맘 카페'인 '안산시흥맘모여라(안시모)' 회원들이 참여하는 이 코너는 출산, 육아, 교육정보, 나눔 등 엄마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방송 소재로 다룬다.

특히, 매번 생방송으로 진행되다보니 댓글을 통한 시민들의 반응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과의 소통 채널로 한몫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날 생방송에 출연한 윤화섭 시장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 시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듣고 말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다"며, "시정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시가 자체 운영하고 있는 소셜방송 안산드림TV(www.ansandreamtv.kr)는 시의 정책 홍보와 행사 현장 중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한 후 온라인 영상매체(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네이버블로그)를 통해 방송하고 있다.

◇ 문의 : 안산시 공보관실(031-481-3126)

### 안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안산분기점 인근 유희지 활용 화물자동차 임시 공영차고지 조성 예정



안산시는 지난 9월 27일 안산시청에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한국도로공사 부지인 안산분기점 인근의 유희지 약 3,300㎡(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9-11 외 4필지)의 부지를 무상제공 받아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윤화섭 안산시장, 유시영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사업용화물차 밤샘주차 등의 수요에 비해 주차

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안산시의 여건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과 맞아 떨어져 지난 4월 한국도로공사수도권본부에서 차고지 조성 부지를 안산시에 무상제공 하겠다는 뜻을 밝혀오에 따라 성사 되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사업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차고지 조성 공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차고지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추진되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이외에도 추가적인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대중교통과(031-481-2289)



### 안산의 자부심 시리즈③

“살아서 거주하는 곳은 안산이 최고”라고 했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의 말이다. 그만큼 천년고도(千年古都) 안산은 ‘살기 좋은’ 지역이다. 지명에 ‘편안할 안(安)’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안산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하기도 했으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이 자부심 가질 만한 역사나 문화재, 인물들을 모아 시리즈로 소개한다.

## 단원 김홍도, 해학과 풍자 그리고 반전의 묘미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풍속화가... 안산에 살며 안산을 그리다

가난했지만 풍류를 즐기고, 끼니를 잊지 못했지만 여유로웠던 김홍도 서민에게는 애정 어린 시선을, 양반에게는 비판과 풍자를... '평등'을 추구했던 단원

“조선시대 이후를 대표하는 화가로서의 명성과 지위를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다” “한국회화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조선 후기 풍속화를 꽃 피웠다” “예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진정한 화가”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독창적인 세계” “풍속화에 관한 여러 가지 선구적인 형식” 등등. 단원 김홍도를 평가하는 글은 넘치도록 많다. 18세기 영·정조 시대 대표화가로 풍속화뿐만 아니라 인물화, 산수화 등 그림 전반에 뛰어났고 산수화·풍속화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안산에 거주하며 안산을 그렸다. 만 30년 동안 안산에서 살았던 표암 강세황 선생으로부터 그림을 배웠다. 이후 도화서 화원이 되어 임금의 초상화인 어진을

그릴 정도로 인정받았다.

화가의 고향은 그가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나 어떠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다 보니 유명 화가의 경우 그 지역의 정체성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안산은 김홍도의 호인 '단원'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며 그를 기념하는 단원미술관도 운영하고 있다.

단원의 출생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없지만, 안산에 살던 표암 선생으로부터 그림을 배웠다는 기록과 실제 단원의 그림 속에서 당시 안산의 모습과 주민들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안산은 단원의 정신을 기억하고 알리기 위해 매년 단원미술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별도의 기획으로 '김홍도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기도 했다.



## '2018 안산 김홍도 축제'

### 단원의 예술혼을 계승하는 안산의 대표 가을축제



김홍도의 그림 속 풍속과 해학이 '2018 안산 김홍도축제'에서 살아있는 그림으로 다시 재현됐다.

단원구 화랑유원지에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 김홍도축제에 전국각지에서 7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녀갔다.

파란 가을하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화창한 날씨까지 더해져 평소에도 많은 이들이 찾던 화랑유원지가 축제를 찾은 사람들로 넘쳤다. 넓은 잔디공원에서는 김홍도의 풍속화를 그리고 전통놀이를 하며 즐거워하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가득 퍼졌다.

공원 곳곳에서 다양한 공연과 체험부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약방, 주막, 대장간, 서당 등 김홍도 마을이 재현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에는 먹거리 부스가 설치됐다. 퀴즈대회 '김홍도 골든벨을 울려라'와 김홍도 사생대회, 마당극도 펼쳐졌다. 특히 마당극과 국악 공연이 인기였다.

김홍도의 그림 중 행려풍속도에 등장하는 노상송사(路上訟事)를 재현한 마당극은 힘없는 백성이 행차 길에 나서는 고을 원민 행렬을 가로 막고 하소연을 하던 장면인데, 놀이패의 능청맞은 연기가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인천에서 왔다는 한 가족은 “지난 여름에 안산거리극축제를 다녀갔는데 인상 깊었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안산을 찾게 됐다. 넓은 공원에서 펼쳐지니 마음이 편안하고 김홍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틀째

아이들과 축제를 방문하고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전통문화 체험장이 많아서 좋지만, 김홍도 축제이니 김홍도만을 더 상징할 수 있는 콘텐츠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 여세를 몰아 내년에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안산 방문의 해' '2019 안산 김홍도 축제' 등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로 전국적인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관광과(031-481-3059)

송민아 명예기자 junseo1000@hanmail.net / 사진\_김진국 명예기자





## 안산에 불어오는 '글로벌 평생학습의 바람'

### 유네스코 선정 '평생학습 도시' 기념행사, 책 문화축제와 함께 '풍성'

지난 10월 9일 안산 호수공원에서 '안산시 평생학습한마당'과 함께 '제8회 안산시 도서관 책 문화축제'가 열렸다. 이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안산시민이 각자가 선정한 '나의 책'을 소개하며 책 문화축제 개막 기념식이 진행됐다. 유희섭 시장은 '안산시 튼튼아보기'를, 슬기초 최준혁 학생은 '스티븐 호킹', 경안고 황윤서 학생은 '나미야 잡화점'을 소개했고, 아동복지 교사, 아동 문학가 등이 무대에 올라 자신에게 한 권의 책이 주는 의미를 이야기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안산시 도서관 책 문화축제(이하 책 문화축제)'는 '책×예술이 거리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책과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접목해 진행됐다.

'장팔찌와 서반장'의 내용을 재구성한 마술 드로잉 쇼, '안산의 책' 작가 사인회, '피프티 피플'의 정세랑 작가와 함께하는 키워드 토크쇼가 이어졌다. 정 작가는 "주인공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소설과 달리 희미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아름다운 50인의 인물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무대는 '책'과 '랩'의 배틀로 꾸며진 '책책 체키라웃'으로 채워졌다. 2018 안산의 책 '미치도록 가렵다'를 주제로 본선에 오른 여덟 팀이 경쟁했고, 엠넷(Mnet) '쇼 미 더 머니'

우승자인 랩퍼 '베이식'과 '미치도록 가렵다'의 저자 김선영 작가가 심사를 맡았다.

광장에서는 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책과 미술을 접목한 '그림책 이어달리기' '북티스트 공모전&전시' 등 체험 프로그램과 안산시 전체 공공도서관 홍보 부스도 마련됐으며, '운동 북 존'에서는 북(Book) 터트리기, 책 계주, 책 뒤집기 등 다양한 놀이가 연출됐다. 또한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 길거리 학습관, 학습동아리가 꾸미는 전시와 공연 등도 진행됐다.

한편, 행사에 앞서 지난 8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선포식을 가졌는데, 이는 지난 2006년 평생학습 도시 선정 후 소외 없는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신규 회원으로 선정됐다.

유희섭 시장은 "이번 유네스코 평생학습 도시 선정을 계기로 더욱 더 성장하는 글로벌 학습도시가 되어야 하며, 모든 시민들이 책 읽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들이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평생학습과(031-481-3450), 중앙도서관(031-481-3862)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안산시와 함께한 '2018 경기건축문화제'

### 전시 · 체험 · 참여 · 학술 행사 '풍부'... "건축문화 발전 계기될 것"



'2018 경기건축문화제'가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건축사협회, 주택건설협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주관한 이번 문화제는 전시 · 체험 · 참여 · 학술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진행됐다.

전시 프로그램은 제23회 경기건축문화상 수상작들로 채워졌다. 경기건축 천년전, 대학생 녹색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건축사 사진작품전,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경기도 으뜸 옥외광고물 공모전, 고등부 우수 졸업작품전, 아름다운 아파트 사진전 등으로 꾸며졌다.

경기건축문화상은 대상 '영애드에프아이 화성공장', 금상 '스타필드 하남' 등이 전시됐고, '경기건축 천년전'에서는 영상으로 제작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수원화성과 남한산성의 발자취가 소개됐으며, 안산의 모습은 옛 지도에 표기된 지명 · 지형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고, 영상을 통해서서는 서해안의 작은 마을에서 거대 산업도시로 변모한 오늘의 모습까지 경험했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했다. 경기학생건축물그리기대회(위원장 이경희)는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일정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400여 명의 학생을 포함해 가족 등 2천여 명이 이르는 인파가 함께했다. 이경희 위원장은 "자연을 이용한 미래의 우리 집이 이번 대회 큰 주제"라며 "비 · 바람 · 풍력 · 태양열 · 지열 등 소 주제가 아이들의 풍부한 상상력에 의해 어떻게 건축물에 표현될지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외 브릭 건축물 만들기, 녹색건축물 종이모형 만들기, 제로에너지 집짓기 등도 마련됐다.

또한 건축 전문가를 위한 녹색건축세미나에서는 미세먼지 대응 환기 기술, 녹색건축 설계기준,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등 최신 동향이 소개됐다.

유희섭 시장은 "지난해 건축문화상 은상을 수상한 시화나래조력문화관 등 예술적인 건축물이 있는 안산에서 올해 경기건축문화제를 개최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건축문화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건축과(031-481-2916) /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제 33회 안산시민의 날을 축하합니다!



‘제33회 안산시민의 날’ 기념식 성료  
지역발전에 힘써 온 시민 45명에게 모범시민상 수여

윤화섭 시장 “누구나 정착하고 싶은 살맛나는 안산 만들겠다”

시 승격 33주년을 축하하는 안산시민의 날 기념식이 10월 2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열렸다. 기념식은 김봉식 안산문화원장의 시민헌장 낭독으로 시작됐다. “안산은 실학의 발상지이며 상록수로 이름난 자랑스러운 고을이다. 넓은 황해로 뻗어나가는 활력이 넘치는 임해 공업도시이며 문화예술이 꽃피는 아름다운 전원도시이다. 우리 모두 뜨거운 애향심을 가지고 살기 좋은 내 고향을 가꾸어 나가자.”

이어 윤화섭 안산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고향은 지난 1986년 시 승격 이후 국가산업단지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혁신도시로 발전해 왔다. 이 모든 것은 시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의 결과다.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가 일자리가 넘치고 환경이 깨끗한 안산, 아이와 여성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안산,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정착하고 싶은 살맛나는 안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있는 도시 안산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응원한다.”는 축하 영상을 보내왔고, 춘천·해남·청양·부안·정선 등 안산시 자매결연 도시에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 인사를 대신했다.

지역 발전에 힘써 온 시민 45명에게 수여한 모범시민상을 비롯해 경기도민상, 안산시문화상, 최용신 봉사상,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등의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안산시립합창단과 시립국악단, 초지동 청년큐브 ‘디스 이스 잇(This is It)’팀의 축하공연은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국민 록밴드’ YB 윤도현, 안산문화광장을 접수하다  
시민의 날 기념 ‘어느 멋진 날에’ 공연… 시민이 행복한 축제 한마당 펼쳐

안산문화광장 전망대광장에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국민 록밴드’ YB 윤도현의 시원한 공연이 펼쳐졌다. 서른세 번째 시민의 날 기념행사로 10월 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된 ‘어느 멋진 날에’ 공연으로 안산시립국악단(상임지휘자 임상규)과 안산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박신화)도 함께했다.

윤화섭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1986년 안산에 들어와 33년째 살고 있다.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시정을 잘 이끌어가겠다.”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타 지역에서도 오고 싶은 안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행사의 시작은 안산시립국악단(이하 국악단)이 열었다. 국악단은 인기영화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음악(OST)을 장엄하게 연주했으며, 곱게 한복을 차려 입은 단원은 애절한 목소리로 ‘아리랑’과 ‘강원송’을 불러 시민들의 시름을 달랬다.

안산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와 ‘살짜기 읊서예’에 이어 ‘꿈에도 못 잊을 그리운 님이여~’까지 부르며 흥을 돋우었고, 계절에 맞게 편곡한 ‘네버 엔딩 스토리(Never Ending Story)’를 부를 때는 시민들도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YB 윤도현 밴드가 맡았다. 대중들에게 익숙한 음악들로 시원하게 공연을 펼친 윤도현 밴드는 안산문화광장을 ‘록의 도가니’로 만들며, 말 그대로 ‘광장을 접수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공연을 끝까지 관람한 선부동 주민 엄미숙(여) 씨는 “안산은 공원이 많아 살기 좋은 도시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아이들을 잘 키워 장가도 보냈다”며



“오늘처럼 공기가 좋고 문화가 넘치는 안산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말했다.

초지동에서 왔다는 박옥순(여) 씨도 “안산의 자랑 시립국악단과 시립합창단의 연주와 노래는 늘 감동적”이라면서 “오늘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 된 것 같아 정말 행복하다.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린 것 같아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064) /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 제 33회 안산시민의 날을 축하합니다!

## 1 우리산업을 이끄는 안산스마트허브② 제21회 안산시 중소기업 대상



# 기업경영 부문 삼위정밀, 기업발전 부문 평안제관 노사화합 대표자 부문 동화지앤피, 노사화합 근로자 부문 한국신문잉크

안산시는 10월 2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진행된 '안산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제21회 안산시 중소기업 대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기업경영·기업발전·노사화합 3개 부문 4명이었다.

기업경영 부문 삼위정밀 김태한 대표, 기업발전 부문 평안제관(주) 심재준 상무이사, 노사화합 대표자 부문 동화지앤피(주) 이재호 대표, 노사화합 근로자 부문 한국신문잉크 이동욱 노동조합위원장이 각각 선정됐다.

기업경영 부문은 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공헌한 기업 대표를 선정하며, 기업발전 부문은 중소기업 생산설비 자동화와 신기술개발을 통한 매출 증대, 근로자 환경개선 등 기업발전에 헌신한 관리자를 선정한다. 또한 건전한 노동운동 정착과 노사분규 예방 및 근로자 복지향상으로 노사화합 증진에 기여한 기업대표와 근로자를 노사화합 부문 수상자로 선정한다.

수상자와 수상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특례보증 우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기회가 제공된다.

### 자동차 부품업체 삼위정밀 김태한 대표

“지역경제 살리는 것이 애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삼위정밀 김태한 대표는 1990년 3월 회사 설립 이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인원 감원 없이 직원들에 대한 신뢰와 회사 성공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수출기업의 대표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개인과 회사의 성장 및 성공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애국하는 일”이라는 소신으로 매년 20% 이상 성장을 이끈 경영 리더십이 수상의 배경이 되었다.

삼위정밀은 현대·기아·쌍용차 등 국내 회사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인 하니월의 글로벌 파트너로 선정되어 수출 기반을 다져왔다. 2015년 500만 불 수출탑, 2016년 1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고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등 계속해서 수출 및 매출 신장을 갱신하고 있다. 또, 매출이 신장되는 만큼 납세의 권리도 성실하게 이행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환경경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안산환경재단의 환경인증 기업, 클린(Clean) 사업장 인증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사 1경로당 지원 및 독거노인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 금속캔 생산하는 평안제관 심재준 상무

베트남 공장 설립으로 수출시장 선점



평안제관(주) 심재준 상무이사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해 고강도 공관(캔)을 개발하는 등 특허3건·실용신안3건·디자인등록27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베트남 등 해외 디자인에서도 2건의 권리를 획득하는 성과를 이 끌어 회사의 생산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특히, 베트남 공장 설립을 추진해 수출시장을 선점하고 원자재 수출을 늘렸다.

평안제관은 ‘비정규직 없는 회사 만들기’를 원칙으로 현재 114명의 직원이 모두 정규직이며, 일자리 늘리기에 적극 동참해 노동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1981년 5월 설립된 평안제관(대표 신정현)은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를 생산하며, 이미 모범납세자 표창, 우수납세자 인증을 수상했다. 2014년에는 안산시 중소기업 대상에서는 노사화합 대표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식품용 병 생산하는 동화지앤피 이재호 대표

남성 직원 육아 휴직 장려



동화지앤피 이재호 대표는 ‘회사 발전 및 직원의 행복을 위해 노사 양측이 서로 입장을 경청하고 공유하며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인센티브 및 우수 사원 해외 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남성 직원들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직원 휴게실 운영, 장기근속자 포상 등 다양한 생활 복지를 챙기며, 여름에는 구내식당에서 보양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회사 내 자동심장 충격기를 비치하고 사용법도 교육했다.

2015년부터 시차출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퇴직연금 가입을 보장하는 등 노사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70년 1월 현대대우공업(주)으로 시작한 동화지앤피(주)는 약이나 식품을 담는 병을 주로 생산하며 2016년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다.

### 상표 로링크의 한국신문잉크 이동욱 위원장

매일 1일 이상 현장 순회



이동욱 제9대 한국신문잉크 노동조합 위원장은 체육대회, 등반대회, 창립행사 등 노사화합을 위한 행사들을 잘 이끌어왔고, 생산성 향상과 매출증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동욱 위원장은 매일 1회 이상 현장을 순회하며 사원들의 고충을 수렴하며, 조합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분임조 모임이나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동호회 활동 지원, 우수파트 선정·포상, 사위실 및 휴게실 운영, 생일·결혼기념일 상품권 지급, 통근버스 운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직원 복지증진의 성과를 이 끌어왔다. 또 경기도 내 산별·지역별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노사화합에 적극 기여해 건전한 노동운동 정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1982년 11월 설립된 한국신문잉크(대표 권문한)는 30여 년 동안 국내 대부분 신문사에 제품을 납품하며 신문윤전 잉크 시장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2000년에는 5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고, 2008년에는 ‘코링크(Korink)’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 문의 : 안산시 기업지원과 (031-481-2841)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mailto: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제 33회 안산시민의 날을 축하합니다!

안산시문화상, 향토문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5명 선정 · 시상

안신원(학술) · 김성운(예술) · 이선교(교육) · 염희섭(지역사회개발) · 정보경(체육) '영예'



안산시가 '제33회 시민의 날'을 기념해 안산시문화상을 시상했다. 향토문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학술·예술·교육·지역사회개발·체육 5개 부문에 걸쳐 진행됐다. 수상자들의 공적에 대해 소개한다.

학술부문

안신원 한양대 문화인류학 교수

안산시 문화유적 조사·연구·출판·교육 활동 '혁혁'



지난 2000년부터 한양대 문화인류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안신원 박사는 현재 한양대학교 문화재 연구소장이기도 하다. 안 교수는 안산시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출판, 교육·문화까지 다양하게 활동하며 향토문화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다.

안산읍성, 대부도, 안산향교 등 안산을 대표하는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했으며, 안산시 문화유적 분포 지도 제작, 안산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학술조사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또한 문화유적 발굴조사를 바탕으로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문화재 관련 출판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며, 이는 지역 내 문화재 연구 및 활용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교육·문화 부문의 활동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대부도 학술조사, 안산시 문화재 현상 변경 및 문화재 영향평가 자문, 안산 어촌민속박물관 전시·운영 자문, 전시 유물 대여 등의 공적도 인정됐다.

예술부문

김성운 옥공예가

대영박물관에 소장된 '옥석화로' 제작 참여



김성운 옥장(玉匠) 전수조교는 13세부터 선친 김용철 옥장에게 전통옥공예를 사사했고(스승을 삼고 가르침을 받다), 지난 1992년부터 안산에 거주하면서 많은 작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6년에는 안산에서 열렸던 '경기도무형문화재 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안산에서 '옥공예 전시회' 및 '옥장 공개행사'를 마련함으로써 안산시 전

통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13년에는 경기도무형문화재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무형문화재 전수조교회'를 결성, 그 첫 전시회를 안산문화원에서 개최했다. 현재도 회장으로서 전수조교들의 권

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수조교들의 작품 전시회를 매년 기획하여 지금까지 5회째 진행하고 있다.

특히, 김성운 전수조교는 선친을 도와 '옥석화로' 제작에 참여했으며, 이 작품은 현재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영구 소장·전시, 우리 전통공예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전통공예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도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부문

이선교 초지초 교장

41년 6개월 교직... 초등교육 발전 헌신



이선교 초지초 교장은 지난 1977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41년 6개월 동안 교육에 대한 열정과 성실한 자세를 토대로 교직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본오초, 본원초, 성안초 교사를 거쳐 호동초, 원일초 교감을 역임했으며 2014년부터는 초지초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교장은 초등교육의 발전과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봉사정신 함양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원일초 교감과 초지초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상생을 위한 교육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한 공적이 인정됐다. 이외에도 학교 문화예술 교육 활동 지원 및 공감과 소통의 학교 민주주의 만들기를 위한 노력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나 가꾸기'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1인 1악기'를 추구하고 있으며, '꿈·끼 탐색주간'을 운영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친구들과 함께 탐색해보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수, 정보경, 이선교, 염희섭, 김성운 수상자

### 제 33회 안산시민의 날을 축하합니다!

#### 지역사회개발

#### 염희섭 일동경로당 회장

### 성호중학교, 우체국 설립에 기여



염희섭 일동경로당 회장은 1970년부터 안산시 성포동 및 일동에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새마을 지도자, 통장협의회, 동정자문위원회, 주민자치 위원회 등 여러 직능단체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일동경로당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돕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염희섭 회장은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제안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일동에 금융기관이 없어 상록수역까지 나가야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우체국 설립을 건의해 이뤄냈고, 성호중학교 설립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청과 협력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후에도 일동경로당과 복지관의 분리 추진, 고등학교 및 체육문화센터 건립에도 적극 나섰으며, 일동경로당 회장을 맡으면서는 어르신들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염 회장은 그동안 경기도지사상 1회(1987), 안산시장상 3회(1987, 1990, 2006), 경기도성균관 유도회, 안산시 지역의료보험 감사패 등 다수를 수상했다.

#### 체육부문

#### 정보경 유도선수

###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정보경 선수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유도선수로 활약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여 은메달을 수상했다. 당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메달이었으며, 이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이후 20년 만에 여자 유도 결승에 오른 쾌거였다. 정보경 선수는 국제대회에서 맹활약하며 국민들에게는 기쁨을, 안산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 주었다. 또한 국위선양과 함께 우리시 스포츠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이번 '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의 금메달은 팔꿈치가 꺾이는 고통을 참아 내며 연장전까지 치러 얻어낸 승리로 더욱 값진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 유러피안오픈 국제유도대회 1위, 2015 아시아오픈 타이페이 국제유도대회 1위, 2015 세계유도선수권대회 3위, 2016년 뒤셀도르프 그랑프리 1위, 2017년 파리그랜드슬램 1위, 2017 월드마스터즈 3위 등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안산드림TV」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응답기간 : 2018. 10. 29(월) ~ 11. 12(월) 15일간
- 참여방법 : 홈페이지 방문 또는 QR코드 인식
  - 안산드림TV (www.ansandream.tv) 또는 안산시청 (www.ansan.go.kr)
  - 링크 (http://naver.me/5utIKFCG)
- 조사기관 : 안산시청 공보관 ☎ 031-481-3126

**\* 응답자 중 50명 추첨!  
 기프트콘(1만원권) 발송!**



#### INTERVIEW

#### 제29회 최용신봉사상 수상

“주어진 것들을 그때그때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싶어요”



#### 강성숙 본오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관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항상 직원들이라고 답한다. 제일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도 마찬가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한다.”

제29회 최용신봉사상을 수상한 강성숙(58, 수녀) 본오종합사회복지관장은 인터뷰 내내 직원들에게 고마

움을 전했다. 강성숙 관장이 한결 같은 열정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강 관장은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수도자로 17년 동안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헌신해 왔다. 필리핀에서 임신한 윤락여성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시작으로 한국에 돌아와서는 농촌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요양원을 세웠고, 2007년 본오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부임한 이후 현재까지 지역 내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직후 안산지역 10개 복지 기관과 연대해 희생자 형제자매들을 위한 공간인 ‘우리함께’를 운영하면서 유가족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다.

10개 복지 기관 네트워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 관장은 지난 8월 30일 운영이 종료된 ‘우리함께’에 대해 “그동안 여러 기관뿐 아니라 이름 없이 후원해주신 많은 시민의 힘으로 공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참사 이후 복지의 중심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 사람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복지사들이 기꺼이 그 긴 시간들을 희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서 강 관장은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 아동과 가족 봉사단을 연결해 엄마들에게 자유 시간을 주는 ‘코 패밀리(Co-family)’,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대상의 ‘할배 셰프(chef)’ 등이 그것으로, 리더와 직원들이 서로 믿고 함께하는 유연한 조직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 성과였다. 이를 위해 강 관장은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라는 집단 의사결정 구조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제안한 의제를 토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모두가 복지관의 주인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했다. 강 관장은 “오픈 스페이스에서 건의된 안건이 바로 다음 날 반영되는 모습을 본 후 직원들이 ‘이게 진짜 되는구나’ 했던 게 벌써 십 년”이라며, “이후 직원들 사기도 오르고 자부심도 생긴 것 같다.”고 했다.

“꿈이 뭐냐”라는 질문에 강 관장의 답은 오래 곱씹을 만큼 담백하면서 진실했다. “주어지는 일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때그때 받아들이는 삶을 살고 싶다. 꿈을 정해 놓으면 그 꿈을 좇아가느라 다른 것들을 놓치지 않을까?”

‘나’라는 자아가 주어다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환경과 시간’이 주어다 되는 삶.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보내는 삶. 검소한 수녀복 위로 환한 미소를 머금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 많은 이들의 꿈이 반짝거리는 것 같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 내가 안산을 사랑하는 이유

"제33회 안산시민의 날을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던 안산이 시로 승격된 지 33년이 지났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시민의 날' 행사도 성대하게 진행됐다. 어느 도시, 어느 시민이나 마찬가지로 각자의 사연은 있기 마련이다. 3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도시는 도시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모두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안산시민으로서 '나는 안산에 산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이 필요하다. 그들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참고로, 안산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축하 인사는 지면 관계 상 한 줄로 마감한다.



## 도전! 안산은 펀펀(funfun)한 곳



1979년부터 안산에서 살았다. 아주 어린 시절이었기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눈발이 많았고 초등학교는 원곡초 하나였다. 5층 아파트가 생겼다. 라성호텔은 초고층으로 대접받으며, 가끔 한 번 씩 놀러 가던 곳이었다. 안산은 점점 발전했다. 그러나 서울 동창 모임을 다녀올 때면 여전히 안산책이라고 놀렸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만들어 차를 타고 대부도를 갈 수 있게 됐고, 고잔벌은 땅이 되어 멋진 신도시로 변모했다. 청년이 되었을 땐 안산을 떠나 다른 도시로 가서 꿈을 이루고 싶었다. 그런데 안산 원주민을 만나 결혼하며 안산에 뿌를 묻게 되었다. 첫째아이를 낳았고 12년 만에 둘째를 낳았다. 40년째 안산에서 숨 쉬고 호흡하는 사이 어느새 안산은 나의 고향이 되었다. 매년 5월에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열린다. 여러 공연 중 문화광장을 하얗게 덮어 버린 깃털 퍼포먼스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매우 흥미롭고 놀라웠다. 재능이 많은 한국인과 외국 작가들의 공연을 보며 기뻐다. 젊음이 있는 거리, 가족들이 함께 하는 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안산이다. 마음 아픈 사건에 힘든 날도 있었지만 안산 시민들은 잘 견디고 있다.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이 있고 안산에는 미래가 있다. 촛불이 꺼지지 않고 밝아지는 안산에서 나는 보았다. 도로가 생기고 도시가 만들어졌던 안산의 역사가 곧 나의 일부이다. 내 삶은 안산과 함께 성숙해 지고 있다.

- 민영옥

## 내가 안산을 사랑하는 이유

2016년 결혼을 하면서 안산에서 살기 시작했다. 아내가 나고 자란 고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연애 4년 동안 안산의 구석구석을 참 많이 돌아다녔다. 도로가 넓고 드라이브 코스가 많아 차를 가지고 아내를 만나러 오는 길도 참 좋았다. 그리고 차 없이 데이트를 하는 날엔 우리의 추억의 버스 52

번! 정말 안가는 곳이 없는, 5분 이상 기다려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자주 오는 버스! 지금도 출퇴근길 항상 이용하는 버스이다. 안산이라는 곳은 정말 실제로 살아보지 않고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내가 안산을 사랑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그중에서도 큰 이유는 바로 노적봉공원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 노적봉을 방문했을 때 기억은 아직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노을이 낀 하늘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치맥! 그걸 함께하는 사랑하는 내 아내(그때는 여자친구) 그리고는 종종 우리는 노적봉 산책로를 찾아 운동을 했다. 아내가 키우던 귀여운 강아지 쫘아와 함께! 내가 가본 어느 공원보다도 노적봉공원은 정말 최고이다. 그때 함께 하던 귀여운 쫘아는 무지개다리를 건너 함께할 순 없지만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안산에서 행복한 미래를 함께 해야지. 현재 나에게 안산이란 여유와 행복이 넘치는 살맛나는 도시다.

- 박진현

## 안산은 나의 고향.. 나의 추억의 동네

안산에 살게 된지 어느덧 32년, 그동안 안산 이곳저곳을 이사 다녔다. 부곡동, 선부동, 원곡동, 성포동. 나에게 고향이고 떠나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었다.

20대 후반이 되어 나는 결혼을 하게 됐고, 어느 동네에서 살아야 하나 고민 끝에 남편이 될 사람에게 안산을 떠나기가 싫다며 안산에 함께 살자고 이야기를 했다. 남편은 회사가 있는 수원에 살기를 바랐지만 고민 끝에 내 의견을 존중해줘 안산에 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우리는 '본오동'에 첫 보금자리를 틀었다. 동네를 걸어 다니며 어떤 곳들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상록수체육관, 최용신기념관, 본오도서관,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등 상록수역 주변으로 다양한 곳들이 있다는 것에 나는 무척 기뻐다.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가 상록수체육관이다. 배구 경기도 이곳에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체육관 안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너무 좋다. 앞으로 나는 아이를 낳고도 계속 안산에 살고자 한다. 안산에는 화랑유원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호수공원이 있어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살기 좋은 안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 33회 안산 시민의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산에 살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항상 안산이라는 도시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안산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깨끗한 도시, 살맛나는 생생 도시 안산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윤이나



## 안산의 꽃은 바로 시민

안산에서 17년 정도 살고 있는 대학생 정아름입니다. 어렸을 때 이사를 온 후 계속 안산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 기숙사에 살게 되어 지난 3년은 거의 다른 지방에서 생활했습니다. 안산에서 살 때는 잘 알지 못했던 안산의 좋은 점들이 다른 곳에서 살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평평한 지대'입니다. 저의 기숙사가 있는 지역은 크고 작은 언덕과 가파른 길의 연속입니다. 자전거를 타기가 어려울 정도로 가파른 곳도 있죠. 적당히 먼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에 안산에 오면 평지의 연속인 안산이 정말 좋게 느껴졌습니다. 자전거 관련해 또 다른 장점도 있는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페달로'입니다. 바로 안산시 공공자전거 인데요. 저는 페달로를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또한 공원이 많아 녹지 비율이 높은 도시라는 점과 국제거리극축제와 같은 문화행사가 많은 것도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 저는 안산의 꽃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시민의식으로 더욱 가치 있는 안산 라이프를 즐겨 봅시다!

- 정아름



### 나에게 안산천이란?



'안산천' 누가 봐도 안산에 흐르는 하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안산을 대표하는 하천이다. 한때 안산천은 악취가 나고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 사람들이 찾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의 안산천은 밤낮으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낮에는 하천 주변에 있는 많은 꽃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잡아 발길을 멈추게 하며, 밤에는 시원한 분수쇼가 지나는 시민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해준다. 또한 자전거 도로도 조성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데이트 및 운동 코스로 이용된다. 여기에 안산시의 노력으로 수질 또한 개선되어 과거의 악취는 사라지고 잉어들이 뛰놀고 자라가 청송맞게 헤엄치며 노는 보기 좋은 하천이 되었다.

하지만 나에게 안산천은 또 다른 의미가 더해졌다.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없는 아내와 아들에게 좋은 운동장이자 볼거리를 제공하는 놀이터가 되었다. 아이를 안고 아내와 걷는 안산천의 매력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특히 노을을 등지고 걷는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은 내 가슴을 설레게 한다. 아이 또한 답답한 집에만 있다가 안산천의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 지는지 깔깔대며 웃으면 우리 가족은 더욱더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든다.

안산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산천을 지나쳐가지만 안산천의 매력에 대해서 깊이 느껴보지 못하고 스치듯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다. 과거에 물을 돈을 주고 사먹을 거란 생각을 누가 했겠는가? 지금의 안산천의 아름다움도 어느 순간 돈을 주고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지금이라도 잠시 안산천에 들러 잠시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 벌써 33회를 맞는 안산시민의 날 축하하고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안산시가 되길 바랍니다.

- 이철승

### 안산에 살게 되어 편안한 삶을 즐긴다.



아내를 만나게 되어 안산이라는 동네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항상 내는 안산이 살기 좋은 동네라며 연애할 때부터 이야기를 해 주었다. 연애당시 나는 안산이라는 동네를 몇 차례 오게 되면서 점점 익숙해 졌다.

데이트 코스로 안산 여기저기를 다녀왔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화랑유원지에 있는 경기도미술관이었다. 안산이라는 동네에 이렇게 큰 미술관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탄을 했다. 미술관은 규모도 무척 크고 전시작품도 훌륭해서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됐다. 내는 나에게 안산의 대표적인 미술관 중 한 곳이라며 자랑을 하는데 너무 열정적이어서 안산시 소속의 홍보단원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 그렇게 아내의 적극적인 홍보 덕에 나는 점점 안산을 더 좋게 기억하게 됐고 현재는 결혼해서 안산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 올해 안산은 행사가 매우 많았다. '어느 멋진 날에', '김홍도 축제', '보나마니 축제', '가구단지 축제' 등... 처음에는 기대하지 않고 가 보았지만 행사장에 가보는 순간 너무 즐겁게 즐길 수 있어서, 안산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뿌듯함을 느꼈다. 아내가 그렇게 안산을 입이 닳도록 칭찬한 이유를 나도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

연애하던 때를 추억하고자 경기도 미술관을 다시 찾게 됐다. 미술관 주변에는 화랑유원지가 있어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공원이다. 화랑유원지라는 대표적인 공원과 미술관이 있다는 것은 칭찬해 주고 싶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단원미술관 등을 수시로 방문하는데, 시시때때로 새로운 전시 행사들을 진행해 즐거움을 주는 곳인 것 같다. 내가 안산에 살게 된지는 어느 덧 4년. 오래 살던 아내보다 이제는 안산이라는 곳의 길을 내가 더 잘 알고 더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어렸을 때 살던 칠곡보다 안산이 나의 고향처럼 느껴진다.

- 이현대



### 사방이 푸르거, 눈이 시원하다

서울에서 태어나 40년 가까운 시간을 서울에서만 살던 내게 안산은 낯설고 두려운 지역이었다. 단순히 언론을 통해 드러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라기보다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정보의 부재에서 오는 막연함이 더 컸을 것이다.

어느 날 남편이 느닷없이 "안산으로 이사 가자" 했고, 나는 "절대 안돼"라며 격하게 반대했다. 그렇게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던 중 남편이 "안산에 직접 내려가서 전체적으로 둘러본 후 결정하자" 제안했고, 나는 주말에 가까운 곳으로 여행 다녀온다는 마음으로 오케이.

차를 타고 30~40분 정도 달렸을까. 어느덧 안산동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안산시를 대표하는 지명이라기에는 너무나 시골스러운 분위기였다. 실망감이 들었던 찰나 남편이 "이곳은 가장 끝에 있는 동으로 도심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행이다 싶었다.

그렇게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따라 달리다보니 느닷없이 서울과는 다른, 아주 많이 다른, 뭔가 아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좌우 어느 쪽을 둘러봐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푸름의 물결, 바로 녹음이 우거진 공원들 때문이었다. 특히, 부곡동에서 일동까지 이어지는 성호공원과 폭포수가 떨어지는 노적봉까지... 이곳이 '늘 푸른, 상록구'라는데, 그 이름에 참 잘 맞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감히 창문을 열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선택은 옳았다. 열린 창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상쾌했고, 눈의 시원함뿐만 아니라 코나 피부까지 충분히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안산으로 이사를 왔고, 공원 옆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주말이면 김밥을 싸서 집 앞 공원으로 나갔고 간단하게 텐트도 쳤다. 남편은 배를 깔고 엎드려 책을 읽었고, 나와 아이들은 시원한 나무 그늘을 걸으며 '도심 속 정원'을 즐겼다. 눈과 코, 피부까지 시원한 안산! 살아보면 다르다. 정말 좋다.

"서른세 번째, 안산시민의 날! 축하합니다!"

- 한혜진

### 희망의성 대부도

안산살이 10년...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 한참 일을 해야 할 나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심을 얻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져서 앞만 보고 달렸던가. 안산에 10년 동안 살며 한 번도 대부도에 간 적이 없었다. 이번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늦잠을 자는 대신 아침 일찍 대부도를 향해 시동을 걸었다.

대부도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었다. 고민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이브로 즐기기로 결정했다. 첫 대부도 여행이라 내비게이션과 지도에 의지해 달렸다. 가을바람이 그 동안의 피로를 씻겨 내는 듯했다. 한참을 달렸나보다. 탄도방조제까지 왔다. 이곳이 대부도 끝이다. 차에서 내려 사진 한 컷을 찍고 낚시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자리를 옮겨 해변을 따라 계속 달렸다.

점심에 다다를 때까지 눈과 코로 자연을 담았다. '이 곳까지 와서 그냥 갈 수 없지'라는 생각에 칼국수집들이 준비한 식당가 중 한곳을 선택해 자연과 가장 가까운 음식을 시켰다. 해물칼국수 당첨! 낚시 한 마리와 전복이 눈에 들어왔다. 평상시 먹지 못했던 바다 향 가득한 음식이 내 입가를 웃게 만들었다.

대부도에 오길 잘했다. 비록 오기까지 10년이나 걸렸지만 이번 여행 이후로 대부도는 단골이 될 것 같은 예감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큰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 윤예녹



##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만든다

# “안산 시민 모두가 문화적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

사회적  
기업  
컬처75



김태현 이사장

2017년 12월, 예술인들이 사회적경제 안으로 들어왔다. 서울예대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청년 예술인을 포함해 아마추어 생활 예술인들 130여 명이 모였다. '75만 안산 시민 누구 하나 빠짐없이 문화적 혜택을 받게 하자'를 모토로 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김태현) '컬처75'를 결성했다. '컬처75'라는 이름에는 '예술인들은 시민들의 문화적 혜택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활동이 어렵고, 예술 활동의 방향은 시민들을 향해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75만 시민이 예술 활동의 주인공이 되면 하는 바람'도 함께 담겼다.

'컬처75'는 안산 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사업을 벌이고 정책을 제안하며, 75만 안산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적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컬처75' 조합원들은 안산에서 예술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제로 '예술인 공유토크'를 3회 열었으며, '예술인 기본소득 꿈꿀 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 '정책상상 토크'도 진행했다. 또,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비전 2030'에 따른 정책 제안을 위해 논의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시민을 대상으로 '마켓 포레스트'와 '꿈의 학교'도 운영한다. '마켓 포레스트'는 안산문화예

술의전당 야외 공연장에 대한 연간 사용을 제안, 4월부터 매월 첫째·셋째 주 토·일요일에 문화 놀이터를 연다. 김태현 이사장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야외 공연장은 잔디가 넓고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아 놀이공간으로 더없이 좋다. 무대가 있으니 공연이 따르고, 수공예품부터 아이용품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마켓도 열린다. 넓은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으며,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과 푸드 트럭까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예대 졸업생들이 진행하는 꿈의 학교 '예술이 뜨는 옥상'에는 중·고등학생 18명이 참여해 연극과 마임, 캘리와 도예를 배우고 있다.

'컬처75'가 지향하는 예술은 '가치'며, 지역축제를 기획할 때에도 '가치'를 담아낸다. 지난 9월 9일에는 중앙동 주공아파트 7단지과 8단지 사이 길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태봉예술 축제'를 열었다. 버려진 종이박스로 건축물을 쌓고, 아스팔트 바닥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며, 인조 잔디 위에서는 보드게임을 한다. 공연, 체험, 놀이가 함께 어우러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태현 이사장은 "상록수문화제의 경우도 최용신 선생의 정신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시민들과 만나야 한다. 일제강점기 때 노동에만 얽매어있던 사람들에게 배움을 선물했듯, 현재 배움에 내몰린 아이들에게 놀이를 만들어주는 게 최용신의 정신이 아닐까?"라며 했다. 또, "각각전투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컬처75 조합원으로서 '안산에서 같이 예술한다'는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 의지하며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안산이 실질적인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민관 문화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사업을 기획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문의 : 컬처75(031-402-7555)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오픈스튜디오 프로젝트

### '옆집에 사는 예술가'(1)

예술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생활공간이 활짝 열렸다. 경기문화재단이 경기지역 미술작가들의 작업을 보다 밀도 있게 소개해온 G-오픈스튜디오 '옆집에 사는 예술가'가 올해는 안산의 열 두 작가를 찾았다. 안산문화재단 공모로 선정된 열 두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 이들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본다.

## 이연실 작가 : 도자(陶瓷), 색동옷을 입다

### 흙, 물, 불 그리고 바람이 빚어낸 결정체

단국대학교 도예과,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이연실 작가는 2006년 인사동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단원전시관, 경인미술관, 안산문화원에서 개인전 외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2007년 국제 다구(茶具)공모전 특선 수상, 부도형 다관으로 유네스코 우수공예품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한국청소년연맹 도예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부도 종현마을 대금산 자락으로 작게 난 셋길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이연실 작가의 작업실이 나온다. 평범한 주택이라면 장독대가 놓였을 자리에 색색의 유약이 담긴 통들이 먼저 관람객을 맞는다.

자연의 근원적 구성요소인 흙, 물, 불 그리고 바람이 빚어낸 결정체 도자기. 흙의 입자 하나하나가 모여 새로운 형상이 태어나는 작업실에는 커다란 가마가 놓여 있고, 주변으로 물레를 비롯한 각종 도구들이 즐비하다.

얼마 전 새로 들인 공간인 갤러리 '토토리 도자세상'에는 다관과 찻상, 도자벽화, 도자와 칠보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보석 같은 작품들이 작가의 삶을 촘촘히 드러낸다.

우리 선조들이 아이들에게 색동옷을 입혔던 것처럼 작가는 노랑, 연분홍, 쪽빛, 남색의 은은하고 맑은 자연의 색을 도자에 입힌다. 초벌, 재벌을 거쳐 은박과 가느다란 은선(銀線)을 올린 뒤 몇 차례 더 구워 칠보의 재료들과 다양한 색

의 유약으로 우리의 색을 표현한다.

자연석의 이미지를 그대로 들여온 이동식 찻상에는 패랭이꽃이 하늘거리고, 부도탑(浮圖塔, 덕이 높은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넣고 쌓은 돌탑)의 조형미를 차용해 제작한 3~5인용 다관(茶罐)들은 찻자리를 더욱 소중하게 해준다.

황토가 주는 편안한 우리네 풍경도 도자벽화에 담겼다. 한국문화 속 정체성을 작품으로 표현하며 이질적인 재료의 컬러버레이션으로 도예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간다.

도예의 아름다움과 쓰임에 있어 한쪽으로 쏠림 없이 \*천착하는 자세는 '작가로서의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속의 나' 사이에서도 빼어난 균형감을 만들어가고 있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천착하다 : 파고들어 알려고 하거나 연구함)





## 안산착한가게 시리즈-⑩



# 커피 엔 줄리엣

## “저온에서 1초에 한 방울씩 내리는 더치커피가 가장 인기”



가을이 깊어간다. 따뜻한 커피 한잔으로 잠시 쉬를 갖기에 좋은 계절, 이번호에 소개할 안산착한가게는 커피전문점 ‘커피 엔 줄리엣’이다.

이동 한대앞역 인근에 위치한 ‘커피 엔 줄리엣’은 눈 여겨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게 될 만큼 공간이 아담하다. 바로 옆에는 몇 배나 더 커 보이는 카페가 운영 중으로, 과연 영업이 지속될까하는 걱정마저 든다. 하지만 ‘그건 기우일 뿐’이

라는 듯 ‘커피 엔 줄리엣’ 전혜란 대표의 커피사랑과 자부심은 남달랐다.

전혜란 대표는 “요즘은 어딜 가든 카페가 많잖아요. 매장이 작은 만큼 저희는 커피 자체로 승부를 걸고 있어요. 저온에서 1초에 한 방울씩 내리는 더치커피가 우리 대표 메뉴이며 가장 인기도 많아요. 매일 정성껏 내린 좋은 커피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니 손님들께서 착한가게라고 불러주시네요.”라며 “주로 테이크아웃 주문이 많은 편인데, 일회용 포장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환경을 생각해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도록 권유하기도 해요.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손님이 점점 늘고 있어서 뿌듯합니다.”라고 말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것이 학창시절부터 키워오던 꿈이었다는 전 대표는 “지금은 원하는 길을 가고 있어 무척 행복하다”고 했다. “우리 가게를 찾는 모든 분들이 편안하게 커피를 즐기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지요. 매일 커피 한잔은 꼭 드셔야 한다는 멋쟁이 어른신들도, 어린 아이를 동반하

는 엄마들도 모두 이곳에서 편안히 쉬 후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매일 로스팅한 신선한 아라비카 원두만의 향을 느낄 수 있는 커피전문점, 커피 엔 줄리엣의 착한메뉴 아메리카노의 가격은 2천 원이며, 다른 메뉴도 인근 카페보다 저렴한 편이다. 영업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며 연중무휴다. 상가 앞에 주차장도 마련돼 있다.

◇ 문의 : 안산시 지역경제과(031-481-2842)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사진\_김진국 명예기자

### 커피 엔 줄리엣

주소 : 상록구 석호로 48 101호(이동)

전화 : 031) 409-9064



## INTERVIEW

### 매일 첫 손님 요금으로 기부 활동하는 택시기사 허윤선 씨

## “잠시나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게 말씀해주세요”

택시 뒷좌석에 앉는 순간 눈앞에 이런 글귀가 보인다.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를 갖고 계신 분, 알바 다니시는 학생, 기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잠시나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10월 13일 11시, 월피동 다동마트 상가 택시정류장에서 허윤선(58) 택시기사를 만나 물어봤다.

### Q 독특한 기부 활동이라 생각되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어느 날 ‘나누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방법을 찾고 있던 중 라디오를 듣게 됐다. 수원시의 한 음식점 사장이 매일 첫 손님 수익은 무조건 기부한다는 말을 듣고 따라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안산시청 복지정책과에 연락했고, 담당 팀장이 친절하게 안내하며 모금함을 보내줬다. 이후 매일 첫 손님의 요금을 3년 동안 모아 ‘작은 사랑 큰 보람 나누기’에 기부했다.

덕분에 안산시장으로부터 칭찬도 받았다. 작은 정성이지

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껴 지속적으로 할 결심이다.

### Q 이 문구를 보고 해당자임을 말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하루 평균 보통 5~6명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할인해준다.

### Q 가장 힘들게 했던 고객이 있다면?

문구 때문에 귀찮게 하는 고객은 없었다. 급한 손님을 태우고 가는데 신호등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장애인을 목격한 적이 있다. 손님이 워낙 급하다고 하여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

### Q 가장 기쁨을 주었던 고객이 있다면?

“좋은 일 많이 하라”며 만 원을 좌석에 놓고 내리신 분이 계셨다. 아직은 이 사회가 외롭지 않고 따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행복했다.

### Q 향후 바라는 것이 있다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기부활동을 할 것이다. 바람이 있다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택시 ‘부제’를 우리시에 서도 실시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기부가 아닌 후원



자가 되어 더 많이 돕는 손길이 되고 싶지만, 지금은 회사에 매인 몸이어서 힘들고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어머니를 모시고 두 자녀와 빠듯하게 살아가는 허윤선 기사는 휴일에 막걸리 한잔으로 피로를 풀며, ‘내일도 행복한 손님을 만나는 꿈’을 꾸며 살고 있다.

노론산 명예기자\_nrssun@hanmail.net

## 새로운 세상을 위한 희망 마중, '4.16재단' 문 열다

###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 만들어가자”

4.16재단(이사장 김정헌)이 지난 9월 안산 고잔동에 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4.16재단은 세월호 가족과 국민이 함께 만드는 비영리 민간 재단으로 4.16 참사 이후 새로운 세상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재단은 이런 참사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생명과 안전, 인간 존엄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염원을 담았다. 재단 설립이 처음 논의된 것은 2016년 9월, 4.16가족협의회가 출연을 결의 하면서부터다. 다음 해 11월 4일 재단설립 추진대회를 열어 공식 준비기구로 '4.16재단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발기인과 후원인 모집에 나섰다. 이후 1만8천여 명의 국민들이 재단 설립을 위한 '기억 위원'으로 참여해 올해 5월12일 창립대회를 마쳤다.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세운 4.16재단은 앞으로 추모 사업, 피해자 지원 사업, 안전사회를 위한 지원 사업,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158명의 세월호 유가족들이 마중물이 되어 500만 원씩 모아 가족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개인, 가족, 단체, 노조, 종교기관 등에서 100만 원씩 모아 국민 발기인으로



로 함께했다. 10월 15일 기준 후원자 수 1만8천290명, 후원금 10억6천900만 원이 모였다.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등을 통해 계속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 열린 사무실 개소식에서 김정헌 이사장은 “피해자를 포함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4.16재단이 만들어졌다. 어깨가 무겁지만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을 우선하는 사회

회로 만들기 위해 할 일이 많다.”며 “설립에 함께 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옥주 4.16재단 운영지원팀장은 “4.16재단은 세월호 참사의 슬픔이 슬픔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바람이 모여 만들어졌다.”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모든 생명이 안전한 세상의 문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문의 : 4.16재단(031-405-0416, 홈페이지 : <http://416foundation.org>)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 “주민들의 힘이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

#### 사동 가을문화예술축제 ‘마을이 예술이야’



지난 20일 사동 어울림공원에서 가을 문화예술축제 ‘마을이 예술이야’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마을 축제였다. 특히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는 물론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와 마을음악회, 플리마켓이 더해져 2천여 명이 넘는 주민이 함께 어울렸다. 행사장에서 마련된 여러 구조물이 인기를 끌었다. 사동아빠모임(금사빠)과 꿈의 학교(마을숲통나무)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스카이워크와 다빈치 브릿지에서 자유롭게 모험을 즐겼다. 공원 한쪽 편에는 로프를 이용해 만든 숲 밧줄 놀이터가 있었다. 나무에 연결한 15m 길이 짙라인은 순서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이어질 정도였다. 주민들이 1년 동안 배운 것을 발표하는 공연과 전시도 성황이었다. 오전에는 라인댄스, 사물놀이, 오후에는 어린이 풍물, 성안고 댄스팀, 청년 밴드 등의 마을음악회가 열렸다. 이밖에도 드림캐처, 나무목걸이, 소콜라떼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호응을 얻었고, 떡볶이, 소떡소떡, 김치전 등 저렴한 먹거리도 선보였다. 플리마켓에선 옷이나 수공예품들이 거래됐다.

올해 7년째인 사동 마을축제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정착시켜 왔다. 쓰레기도 대폭 줄이고 환경보호를 생활화하는 습관도 홍보했다.

가족과 함께 축제에 참여한 이현진(본오동) 씨는 “축제에 와서 아빠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있어 아이도 좋아하고 가족들도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축제를 기획·진행한 이영임 감골주민회 대표는 “매년 주민들의 힘이 참 대단하다고 느낀다. 함께 힘을 합쳐 이런 축제를 만들어낸 것이 뿌듯하다”고 말했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 사이동 라인댄스 동아리 ‘사나래’

#### 지역 축제와 요양원에서 봉사... “흥겨움과 건강 함께 드려요”



사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라인댄스 수강생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사나래’라는 이름의 자원봉사단(단장 고복희)을 만들고, 지역 내 요양원 등을 방문하며 공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3년째다.

‘사나래’는 ‘천사의 날개’라는 뜻이다. 부드럽게 손·발 등 몸을 움직이며 리듬을 타는 춤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천사 같은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보듬자는 뜻을 담고 있다. “봉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겠다”는 사나래 봉사단은 특히 지역 요양원에서의 봉사에 대해 “더욱 특별하고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평소 라인댄스를 접할 기회가 없는 어르신들의 반응도 뜨겁다. “비록 몸은 건강하지 못하지만 흥겨운 음악 속으로 함께 빠져들 수 있기에 감사하다.”는 것.

봉사단 관계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을 움직이니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에 도움을 준다”며 “특히 어르신들 생일잔치 공연은 서로 축하를 주고받는, 정이 듬뿍 담긴 무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사나래는 상록수역과 글로벌센터의 무료 급식장에서도 공연하고 있으며, 사이동 벚꽃 축제나 안산문화광장 에너지 축제 등에서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나래는 고복희 단장을 비롯해 김기영, 박순영, 박은숙, 이용미, 이진아, 최정희, 홍지춘 단원까지 총 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연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댄스 복장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김기영 단원은 “즐겁게 몸을 움직이니 땀이 나면서 정신도 맑고 건강해지는 것 같다”며 “행복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 안산시 & 문화재청, '헬로, 청문당!' 체험 행사 한옥에서 1박2일 묵으며 가족과 함께 문화재 사랑 고취

### 참가학생 "타임머신 타고 현대로 돌아와 옛날 공부 하는 느낌"

구절초 향기 짙어가는 초가을 상록구 부곡동 소재 '청문당'에서 안산 생생문화재 1박2일 '헬로, 청문당!' 체험 행사가 열렸다.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시민 35명이 참여했으며 아이를 동반한 가족이 대부분이었다.

조선시대 4대 만권당 중의 하나이자 표암 강세황과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태동한 곳이기도 한 '청문당'에서 한옥스테이를 하며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헬로, 청문당!' 행사는 올해 처음 시작했으며 앞으로 해마다 진행할 예정이다.

29일 토요일 첫날, 유생복으로 갈아입은 아이들과 부모들은 '청문당에서 만나는 조선시대 고택' 강연을 들으며 한옥의 정취를 누렸고 부채 만들기, 고택 음악회 등을 통해 가족과의 추억을 쌓았다.

이도연(상록초4) 어린이는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로 돌아와 옛날 공부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 신기하고 즐겁다"며 "유생복을 입고 있으니 나도 선비가 된 것 같다"는 설렘을 표현했다. 저녁에는 '도전! 요리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한 자리에 모여앉아 나눠먹는 정겨운 시간으로 진행됐다. 다음날인 30일은 '전통놀이 올림픽' 프로그램인 줄넘기, 공기놀이, 3행시 짓기, 투호던지기 등을 실시했으며 '청문당 우리가 알려요'라는 참가자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 내용을 SNS로 홍보하며 결과물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안산시와 문화재청이 주최했고 A&A문화연구소가 주관했다. 청문당은 진주 유씨 16세손 유시회(柳時會:1562~1635)가 건립한 가옥으로 2000년 3월 경기도문화재자료 제94호로 지정됐다.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3436)  
김효경 기자\_poet-hk@hanmail.net

## "뇌를 깨우는 습관 길러 건강할 때 건강 지켜요"

### 상록수치매안심센터, '두근두근 뇌 운동' 치매 예방 교실 진행

세계는 치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고, 치매 인구가 61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9.4%, 즉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환자다. 더구나 치매는 발병하면 증상을 줄이거나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완치는 아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상록수치매안심센터는 9월~10월에 센터 건물 3층 '큰마당'에서 '두근두근 뇌 운동'이라는 프로그램을 매주 2회(월, 수) 각 90분 씩 총 12회를 진행했다.

안산시의 상록수보건소가 치매 예방 교육법을 시연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사회의 치매 관리 능력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두근두근 뇌 운동'이란 머리 두(頭)와 힘줄 근(筋)을 합성해 만든 말로서, 신문을 이용해 치매를 예방하는 세계 최초의

인지훈련법이다.

훈련은 그날그날 관심 가는 기사를 선택해 읽거나 삶의 재미를 더해 주는 오늘의 운세, 방송 편성표 등을 이용하기도 하며, 서로 이야기하며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이다. 또한 오래된 신문 기사나 사진을 통해 우리 사회와 자신의 삶을 기억하고 돌아보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날짜 계산하기, 삼행시 짓기, 퍼즐 맞추기 등을 통해 지남력(指南力, 시간·장소·상황들을 인지하는 능력)을 유지시키고, 계산력이나 기억, 시·공간 능력, 전환 능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을 골고루 강화시킴으로써 두뇌를 향상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퍼즐 맞추기 활동을 마친 이춘재(여, 78) 씨는 상기된 표정으로 "금방 맞출 것 같았는데 쉽지 않다"며 "사는 재미가 없



어 힘들었는데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가고 재밌다"고 말했다.

상록수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환자 및 가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어 보람이 크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했다.

◇ 문의 : 상록수치매안심센터(031-481-5851)  
김효경 기자\_poet-hk@hanmail.net

## "지역이 나서 사각지대 어르신들 건강을 책임진다"

### 안산의료복지조합, '안산형 노인 커뮤니티 케어 토론회' 진행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경창수, 이하 의료복지조합)은 지난 9월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안산형 노인 커뮤니티 케어 성공적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사회 주도형 노인 건강 돌봄 지원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돼 3년 동안 여러 사업을 진행해 온 의료복지조합 내 '안산365 노인건강돌봄 통합지원센터(센터장 권성이, 이하 365센터)'가 맡았으며, 노인 '커뮤니티 케어 (community care, 지역 사회 돌봄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 어르신들을 비롯해 관련 단체 및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방향 및 사회적 경제'를 발제한 김승연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전문위원은 "대한민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

고 있으며, 현재 복지시설이나 병원 중심의 돌봄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사회 내 충분한 서비스 확보가 중요하며, 다양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사회의 자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산 지역에서의 관련 운영 사례를 소개한 권성이 센터장은 "지난 3년 동안 안산 지역에서 중위소득 80% 미만의 건강 돌봄 취약계층, 65세 이상 500여 명 어르신들의 의료지원을 해내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총체적 건강 유지라는 성과를 만들어 왔다"며 "주치의 등록관리 제도 이외에 건강실천단, 건강자조모임 등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 자치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참여자 스스로 건강상태를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사례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오른 어르신은 "건강도 어렵지만 외로움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며 "여러 활동을 통해 사람냄새를 느끼게 해줘 고맙고 많은 힘이 된다"고 인사했다. 평소 건강사랑방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어르신도 "건강사랑방을 이용하면서부터 스스로 많이 달라졌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며 "이곳에서 운동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031-365-3633)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 우리의 가치, 같이하는 사회적경제 ‘제6회 안산시 사회적경제한마당’, 협동과 나눔



10월 20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야외공연장에서 ‘제6회 안산시 사회적경제한마당’이 열렸다.

사회적경제한마당은 안산지역의 186개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루고, 시민과의 신뢰와 소통을 통해 협동, 나눔, 공유라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공감하고 확대해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기 위해 여는 축제다.

‘풍물마당 터주’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사회적경제 유공자 표창이 이어졌다. 안산시 관계자는 “저성장 시대에 즐거운 경제활동을 하며 개인의 삶을 성취할 수 있는 대안인 ‘사회적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판매장 조성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으며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최현수 센터장은 “나눔과 연대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어려운 이웃이 성장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구조까지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사회적경제에 앞장선 유공자로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김초환 전무이사, 가정관리사 사회적협동조합 김재순 이사장, 대부도 고랫부리섬 생태관광마을협동조합 이재명

이사가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날 축제에는 안산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과 청년기업 등이 착한소비마켓, 리사이클마켓 형태로 참여해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알렸다.

‘아이쿱 생협’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설명하며 ‘건강한 급식’ 응원 캠페인을 벌였고, ‘경기남부두레생협’은 사람과 자연, 지역과 환경을 살리는 유기농 먹거리를 판매했다.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과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지원하는 ‘들꽃피네 카페’는 커피, 그 이상의 가치를 알리며 바빠 손을 놀렸다.

416목공희망협동조합은 도마에서 가구까지 다양한 소품으로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고,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가야금악기장의 부스에서는 “취미로 가야금을 연주하는 딸에게 사주고 싶다”는 시민의 진로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한양대 링크사업단, 단원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과 인근 시흥, 안양, 화성의 기업들도 부스를 꾸렸으며, 시민 셀러들이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마켓포레스트와 닭꼬치, 떡볶이를 판매하는 푸드트럭이 참여해 축제는 더욱 풍성했다.

◇ 문의 :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31-481-8942) /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2018 단원미술제, 정지현 작가 ‘대상’ 영예 안아

### 오는 11월 3일까지 선정 작가전 개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



랜드스캐퍼(landscaper)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단원미술제는 2015년부터 특정 작품에 대한 단편적 심사 대신 작가적 역량을 두루 평가하기 위해 작가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211명이 응모했고, 심사 결과 정지현 작가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1차 포트폴리오 심사를 통해 40명의 본선 후보를 선정한 후 작가들의 작품 의도와 맥락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2차 인터뷰를 거쳐 20명으로 압축했다. 이어 최종 3차 실물 작품 심사를 통해 단원미술대상 1인, 단원미술상 2인, 선정 작가 17인을 가렸다.

행사 관계자는 “올해 미술제에도 전국에서 우수한 작가들이 많이 응모해 11:1의 높은 경쟁

률을 보였다.”며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고민과 열정의 에너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영예의 단원미술대상은 정지현(40) 작가가 차지했으며, 홍정우(38), 이시(29) 작가가 각각 단원미술상에 선정됐다.

단원미술대상에 선정된 작가에게는 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된다. 이는 국·공립 기관에서 주관하는 작가 공모전 가운데 최고 금액이다. 단원미술상 작가에게는 각 1천만 원씩 주어지며, 17명의 선정 작가들에게는 각각 10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대상 작가에 대해 단원미술제 심사위원은 “종이와 목탄이라는 단순한 재료를 사용해 농촌 풍경과 그 풍경의 진실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했으며, 작품의 완성도도 높았다.”며 “특히, 메인작품으로 제시한 ‘랜드스캐퍼(landscaper, 정원사)’는 작가의 ‘일(work)-상(image)’ 시리즈 연작으로, 도시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시골 풍경을 통해 사회적 현실을 잘 담아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단원미술제 선정 작가전이 오는 11월 3일까지 단원미술관 1관과 2관에서 열린다. 더불어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어우러진다. 환경미술협회와 함께하는 야외 특별전과 다양한 공연, 워크숍, 미래의 단원 김홍도를 꿈꾸는 어린이 창작 공모전도 함께 진행된다.

◇ 문의 : 단원미술관(031-481-0503) 이선희 명예기자\_jamyu70@hanmail.net

## 수암동의 이정표 '마을 전시관' 개관 역사는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는 역사가 된다



10월 11일, 안산읍성과 안산군 관아 터 잔디밭 한편에 있던 경로당이 '마을 전시관'(상록구 원당로 3길 34)으로 재탄생했다. 역사적으로 안산의 행정 중심지였던 수암동에는 1991년 경기도기념물 127호로 지정된 안산읍성 및 관아지, 안산향교 터, 100년 역사를 품은 안산초등학교 등이 있어 안산의 '역사마을 1번지'로 불린다.

2011년 안산경로당이 신축되면서 기존 수암경로당을 마을 전시관으로 새로 단장하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알고 보면 또 새로운 수암동의 이야기를 담았다.

43평 남짓한 전시관은 1층에 시민 휴식 공간과 체험 전시실, 2층에 상설 전시실과 기획 전시실로 꾸며졌으며 옥상에는 별도의 쉼터를 마련했다. 특히, 큰 창문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수

암동의 모습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한 부분이 눈에 띄었다.

11일 개관식에 1층 체험 전시실에서는 '수암, 안산의 역사를 품다'가 진행됐다. 행사는 '카메라, 수암의 순간을 담다'와 함께 수암동 실버 정원사들이 참여한 '수암일상(秀岩日常)' 전시로 꾸며졌다.

2층 상설 전시실에서는 안산읍성, 관아 및 안산향교 터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전돌, 기와와 와당 등 유물을 전시했고, 기획 전시실에서는 '나의 살던 고향은, 수암\_신성희展'이 마련됐다. 수암동 출신인故신성희 작가의 40여 년간 작품 세계를 영상으로 조명해보는 아카이브와 작가가 오랜 외국 생활 중 고향 수암동을 그리워하며 제작한 작품들이 전시됐다.

전시관 앞 은행나무 아래에서는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가야금 연주단이 25현 가야금으로 2중주 '오봉산타령', 비파 독주곡 '이죽무곡', 현악 3중주 '태평가'를 연주했다.

안산동 주민 배현아(32) 씨는 "우리의 가락이 수암봉 능선을 타고 퍼져나가는 것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다. 마을 전시관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는데 감개무량하다. 수암동은 다른 동네 주민들보다 결집력이 강하다. 이곳에서 학부모 모임을 갖기로 했다. 아이들이 마을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부심도 느끼게 될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다.

수암마을전시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월요일과 1월 1일, 설·추석 연휴에는 휴관한다.

◇ 문의 : 수암마을전시관(031-481-2794) /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맛깔나는 이야기와 함께 펼쳐지는 국악의 앙상블 단원미술관, 음악회 '화(畵), 담(談), 연(宴)' 펼쳐

단원미술관이 미술관 음악회 '화(畵), 담(談), 연(宴) - 그림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잔치'(이하 '화.담.연')를 개최한다. '화.담.연'은 조선시대 회화를 중심으로 한 강연과 국악 공연으로 구성됐다.

10월 25일 11시에 펼쳐질 '화.담.연'은 '단원 김홍도와 풍속화의 시대'라는 주제로 전통문화 평론가인 한덕택 예술감독의 강연이 진행된다. 단원과 함께 조선 후기 풍속화의 전성시대를 구가한 해원 신윤복, 오원 장승업 등의 작품을 통해 당시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 한다. 현악기로 구성된 국악 앙상블(ensemble, 합주·합창) '더(the) 류'는 풍속화가 전해주는 당대의 생활상과 해학을 공연으로 들려줄 예정으로, 현대적인 느낌을 가미해 일반 청중들도 쉽게 접근하고 빠져들 수 있는 창작곡을 선보인다. 비파와 생황 독주, 노래, 비파와 가야금 협주 등 다양한 레퍼토리(repertory, 연주 목록)를 풀어낸다.

한편, 11월 22일 펼쳐질 '화.담.연' 역시 한덕택 예술감독이 나서 '그림, 소리와 춤을 담다'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조선후기 풍속화와 함께 판소리, 전통무용 등을 연말 축원의 의미를 담아 공연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춘향가 이수자 최진숙 선생도 함께 하며, 전통무용은 양서

운 한국문화재단재단 전통예술단 선임단원이 우리 춤의 고운 선을 보여준다.

또한, 10월 27일 오후 3시 단원미술관 제3관에서는 창작 국악과 미디어 아트(media art, 매체 예술)가 만나는 김홍도의 화첩기행 '환상노정기'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모든 관람은 무료이나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031-481-0505) /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 화,담,연 : 10월 25일(오전 11시) / 11월 22일(오전 11시)

◇ 환상노정기 : 10월 27일(오후 3시)



### 한양대학교 ERICA 사회교육원 2018학년도 겨울학기 수강생모집 안내



모집과정	생활스포츠과정	요가, 댄스스포츠[라틴]
	전문가양성과과정	사진예술, 여행과 사진, 색소폰
	자격증과정	사진기능사, ATC CAD[2급], 컴퓨터활용능력[1급 실기], 커피바리스타
	외국어과정	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일정안내	수강신청기간	
	11.19(월)~각 과정별 개강1주일 전까지	
등록방법	수강신청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신청 홈페이지 주소: cec.hanyang.ac.kr	
상담문의	전화번호	카카오톡 ID
	031) 400-5843~46,5850	"한양대학교ERICA사회교육원"
교육장소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사회교육원(게스트하우스 2층)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해양동

태풍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끝난 '하하호호 락(樂) 축제'



태풍 '콩레이'로 국내 많은 축제들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제2회 해양동 하하호호 락(樂) 축제'는 관계자들의 발 빠른 대처로 별 탈 없이 성공리에 마쳤다. 지난 10월 5일에 열린 이번 축제는 사물놀이, 난타, 에어로빅, 하모니카, 록밴드 등 12개 팀

의 공연과 나눔 장터, 유기농 출산용품 판매, 페이스 페인팅 등 7가지의 체험 및 전시부스로 이루어졌으며, 행사 중간 중간 진행한 경품 추첨을 통해 50인치 텔레비전이나 자전거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화합은 물론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해양동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다.

한편, 축제 관계자들은 행사 당일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를 듣고 즉각적으로 축제 장소를 해양동 행정복지센터 내부로 변경했다. 무대는 2층 강당, 먹거리 판매는 2층 테라스, 공연자 대기실은 5층 공간 등을 활용했다. 또, 행사장 주변 신호등에는 안전요원을 2명씩 배치해 교통정리와 안내를 맡았으며, 처음 행사 장소였던 곳에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걸어 놓아 주민들의 착오를 예방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많은 어르신과 어린이 등 500명 이상 참가자들의 동선을 잘 고려한 완벽한 구조였다."며 "관계자들의 발 빠른 대처로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고 칭찬했다.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사이동

'찾아가는 카페'... "복지 사각지대 우리가 도와요"



조그마한 도움이나마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이강석 대표는 "놀이터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지나가는 택배 아저씨, 폐지 줍는 어르신, 노점상 어르신들을 만나서 얼음이 담긴

유난히 폭염이 심했던 지난 여름, 사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커피와 미숫가루, 매실차 등 시원한 음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카페' 봉사 활동을 했다. 집 밖으로 나와 그늘이나 놀이터에서 더위를 피해 쉬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드렸고, 좋아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도 컸고 즐거웠다"고 말했다.

또한, 협의체 회원들은 어려운 가정을 직접 방문하면서 이불 빨래에서부터 정리정돈, 집고쳐주기, 도배, 식사 제공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봉사로 이웃들을 돕고 있으며, 방학 때 아침 식사를 거르는 청소년들에게 간식 제공과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특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관련해 카톨릭여성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량 소장은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 주고 어르신들의 말벗도 되어 주는 아름다운 봉사 '정이 가득한 사이동'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협의체는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김장 나눔과 집고쳐 드리기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사이동, 벚꽃사이마을 축제... 마을정원 한마당과 함께 진행



사이동 벚꽃사이마을축제추진위원회는 10월13일 장화운동장에서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행복한 '2018 벚꽃사이마을 축제'를 열었다. 올해로 세번째 생일을 맞았으며 '제1회 마을정원 한마당'과 함께 진행됐다.

전계숙 위원장은 "벚꽃사이마을 축제는 지난 200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도시 활력증진 개발 사업에 선정돼 열린 축제로는 올해가 세 번째"라며 "장화운동장 주변은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으로 모기와 잡초 등이 무성해 살기가 어려운 동네였으나 올해는 마을 정원을 가꾸는 등 축제를 준비하며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마을정원 한마당'을 추진한 윤영중 위원장은 "내 집 정원처럼 만들려 애썼고 특히 정원사가 주민 교육과 정원 꾸미기에 많은 수고를 했다. 앞으로 깨끗한 물이 흐르고 물고기들이 노니는 하천, 도자기와의 만남 등 마을정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기임 동장은 "이번 축제는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실로서 주민들이 만족해하며 이를 계기로 사이동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며 "마을정원 축제 덕분에 마을이 더욱 깨끗해졌고,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론산 명예기자\_nrssun@hanmail.net

## 월피동

## 더불어 함께하는 우리 마을 '이웃애(愛)'



월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조사·발굴하여 개별적인 요구사항들을

파악한 후 맞춤형 도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처음 시작해 현재는 '이웃 애(愛) 발견'과 '스~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오고 있다.

10월의 셋째 주 월요일인 15일은 '사랑 애(愛)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날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위원이 편의를 제공하며, 다른 위원은 재료를 손질하거나 직접 반찬을 만들어 마지막 포장과 배달까지 책임진다.

반찬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아껴서 여러 날 나누어 먹고 있는데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 무엇보다 직접 만들어서인지 정성이 느껴지며 맛있다.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기 어려

운데 지속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며 고마워했다.

조서영 위원장은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매번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었다. 늘 감사하다. 특히 식당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박 위원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스~옥 사업'은 지역 직능단체와 연계해 수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청소 및 방역작업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 '스~옥'은 청소를 의미하는 말이다.

노론산 명예기자\_nrssun@hanmail.net

## 안산동

## 자원봉사거점센터, '숲과 역사가 함께하는 자랑스런 우리 마을 이야기' 진행

한산한 일요일 교정. 조용해야할 교실에 한 무리의 아이들이 모여 있다. '내고장 안산동'을 공부하고 또 알리기 위해 모인 봉사자들이다.

안산동 자원봉사거점센터(대표 김은주)에서 진행한 '숲과 역사가 함께 하는 자랑스런 우리 마을 이야기' 사업이다.

자원봉사거점센터는 지역 주민과 안산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봉사를 위해 지정된 것으로 안산시 25개 동 중 9개 동에서 활동하고 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주민 스스로 찾아내고 봉사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이미 지정된 9개 동은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안산동 거점센터는 지난 2013년 지정된 후 2015년에 벽화그리기를 진행했고, 올해에는 경기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돼 봉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김은주 대표는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도 함께 나서고 있지

만 아직은 안산동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생각해 경기도 자원봉사 공모사업을 신청해 선정됐다.

이를 통해 안산동의 문화유산과 역사, 생태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우리 동을 잘 알고 알리기 위한 자발적 봉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결국 안산동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산동 거점센터는 안산초등학교에서 총 8회에 걸친 영상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이 직접 안산동의 문화유산과 자연을 찍어 홍보 영상으로 만드는 과정까지 포함돼 있다. 이 영상은 마을축제나 행사 때 상영되기도 하며, 안산초에서는 훌륭한 교육 자료로 인정받아 각 반에서 활용하기도 한다.

최인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장은 "안산동 거점센터는 안산초를 졸업하고 자신의 모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이 적극 나서고 있다."며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거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좋은 프로그램, 좋은 자원과 연결·지원하는 일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 2018 제10회 안산읍성문화예술제, 천년안산음악회 · 주민자치회 발표회로 열려



제10회 안산읍성문화예술제가 지난 10월 13일 안산읍성 관아지에서 열렸다. 안산시·안산문화원 주최 주관으로 열린 예술제는 안산시의 발전과 안산시민의 무사안녕을 빌며 천지신명께 행사의 개막을 고하는 고유제로 시작됐다.

시립국악단은 천년 넘게 이어져온 안산의 유구한 역사를 장엄한 관현악곡으로 연주했다. 경기민요, 통기타 연주, 팝

페라 가수의 공연은 가을 향기를 타고 안산 지역주민 마음에 울려 퍼졌고, 비보이 비걸(B-boy, B-girl)들의 공연은 안산의 역사가 면면히 힘차게 이어져 갈 것임을 보여줬다.

안산문화원은 붓과 먹을 이용한 휘호대회를 열어 안산관아지를 한시와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자리를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대회인 만큼 대상·최우수상·우수상 한 명에게는 각각 50만원·30만원·2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졌다. 안산읍성의 발굴 당시의 모습과 안산동 역사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역사 사진전은 오는 11월 첫 발을 내디딜 읍성 복원 공사의 의미를 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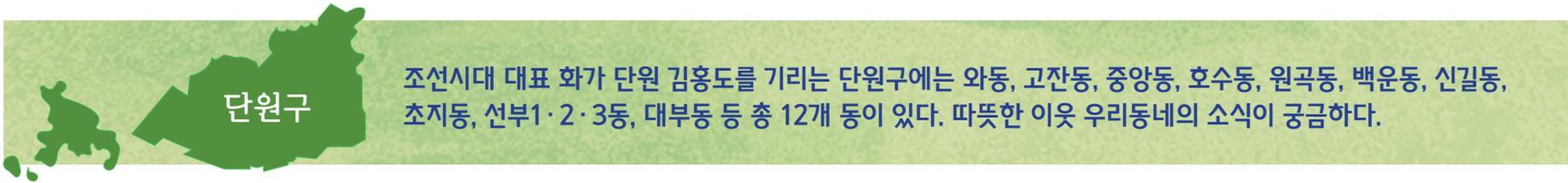
투호놀이, 소코뚜레 던져 걸기, 다듬이질, 떡메 쳐서 만든 인절미 나눔 등 먹거리 장터와 전통문화·민속놀이 체험마당은 축제를 풍성하게 했다.

월피동에서 온 박순이(58세)씨는 "지역 역사를 알리는 문화제여서 매년 관심을 갖고 축제에 참여하고 있다. 안산의 역

사 문화를 내실 있게 알리는 예술제로 커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안산읍성은 수암봉에서 뻗어 내린 산세를 이용해 평지를 감싸 안듯 쌓아 올린 평지 산성이다. 성터가 과거 안산읍의 진산인 수암봉 아래 있고, 안산관아·안산향교·안산사직단·안산우사단 등이 있었던 곳이어서 '안산읍성'이란 명칭이 부여됐다. 성의 둘레는 772m로 고려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관아 터는 1669년 조선 현종 때 이웃한 목내동에서 이곳으로 옮겨졌다. 1991년 10월 19일 경기도기념물 제127호로 지정되었고, 오는 11월 읍성 복원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읍성 복원은 역사의 뿌리를 되살리는 의미가 있다. 이곳에 터를 잡고 뿌리를 내린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되살려, 안산의 위상은 물론 지역 주민의 자부심 고취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 호수동

## ‘레이크댄스’팀, 주민자치 경연대회 ‘대상’



호수동 ‘레이크댄스’팀이 안성에서 개최된 ‘2018년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시·군 간 소통과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각 시·군을 대표한 31개팀, 700여 명이 참가해 음악, 합창, 댄스, 타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연을 펼쳤다.

안산 대표로 출전한 호수동 ‘레이크댄스’팀은 지난해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팀으로, 파워풀한 힙합과 재즈댄스로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다. 2016 경기도 대축전 일반부 1위, 종합 3위를 수상했으며, 2017년 도 대회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

김혜영 강사는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실비로 운영되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저평가돼 수강생은 물론 강사들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열심히 하면 보람이 크다.”고 했다.

호수동 댄스 프로그램에서는 방송 댄스와 걸스 힙합을 배울 수 있다. 1년여 초급과정을 마치면 중급에서 보다 전문적인 댄스를 배우며 다양한 대회에 출전해 무대경험을 쌓는다.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김지영 씨는 “춤 동작을 배우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회원들은 음악으로 하나 되어 단합도 잘 된다. 댄스를 배우며 새로운 ‘나’를 발견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쁨에 일상이 즐겁다.”며 웃었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고잔동

## 즐거운 문화마을축제, “고잔동 여러분~ 밥먹고 합시다”



지난 10월 20일 오전부터 평소 고잔동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인 원고잔공원이 시끌벅적했다. 이날은 고잔동 즐거운 문화마을축제가 열리는 날로 축제 시작시간보다 일찌감치 축제의 장소를 찾은 동네주민들의 발길로 더욱 들뜬 분위기였다.

고잔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올해 내건 <고잔동 여러분~ 밥먹고 합시다>처럼 비빔밥을 준비하여 점심시간에 맞춰 주민들에게 대접하고 1시부터는 지난 달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아이디어 상을 받은 난타팀의 개막 공연이 열려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올해로 4회째 개최되는 마을축제는 고잔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와 더불어 고잔동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와 협동조합, 유관단체, 주민사업단들이 모두 모여 각종 공연과 체험부스를 진행한 이름에 걸맞는 행사였다.

원고잔공원을 쭉 둘러싼 부스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전통매듭, 아동미술 등의 전시와 체험을 진행하였고, 고잔동 문화복지센터 솜과 힘, 신나는 문화학교 솜표, 협동조합 굿빌리지 등이 참가하였다. 정원지킴이 꼬마정원사, 일촌가드너, 문화마을 후원회의 무료체험에는 어린이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고 지난해부터 전통장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 굿빌리지의 니꿈내꿈 부스에서는 고추장만들기 체험을 하여 어른스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통장협의회와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장바구니와 재활용 컵을 이용한 다육이, 소국 화분 등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켜 더욱 깨끗한 고잔동이 되길 당부하는 고잔동 클린 캠페인을 펼쳤다.

지역보장협의체에서는 마을축제에 빠질 수 없는 부침개, 떡볶이 등 먹을거리를 팔아 주민들의 발걸음을 잡았다. 축제공연도 주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개막공연인 난타공연이후 주민자치프로그램인 고전무용, 요가 퍼포먼스 외에 가슴을 뛰게 하는 태권도 시범과 단원

중학생들의 아이돌 못지않은 댄스까지 어느 하나 흥겹지 않은 공연이 없었다. 또한 전 주민자치위원 이광훈 씨의 재치있는 입담과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로 마을축제는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무르익어갔다.

이번 축제에는 그동안 고잔동을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 상이 수여되었다. 마을신문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문화마을 김상곤 후원회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박노현 위원, 박귀옥 위원, 김숙기 위원 등이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의원상과 시의장상을 수상하였다.

2015년 첫 마을축제를 연후, 고잔동 마을축제는 단순한 마을의 잔치로 끝내지 않고 하나의 주제를 제시해왔다.

2016년에는 세월호로 슬픔에 잠긴 고잔동에 소생길을 선포하며 다시금 슬픔과 절망에서 일어나려는 모습을 보였고 2017년에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와 함께 3일간의 성대한 잔치를 열어 다시 활기차고 살기 좋은 고잔동의 모습을 보였다면 올해는 고잔동 주민 스스로 마을의 개선해야 할 점을 찾고 시정하여 더 나은 고잔동이 되기 위한 다짐을 담은 ‘마을의제 선포식’을 진행했다.

주민들 또한 우리 마을의 문제점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까지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황희숙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해는 경품을 많이 준비하여 주민들께 즐거움을 드리고자했다.

내년엔 더 좋은 축제로 다가갈테니 주민들은 더 큰 관심을 주시길 바란다” 며 이 축제를 위해 수고한 고잔동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고잔동 즐거운 문화마을축제가 성황리에 끝났다.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선부2동

### 책 축제 어린왕자와 석수골 마을정원 여행



선부2동 석수골 한마음축제위원회는 10월 9일 석수초등학교 꿈누리마을정원에서 ‘책 축제 어린왕자와 떠나는 마을 정원 여행’을 진행했다.

꿈누리마을 정원 별, 곤충그림 별, 정원사와 조약돌 별, 책 피고 꽃피는 별, 석고방향제와 캘리 별, 꽃 책갈피 별, 애벌레와 곤충놀이 별 등 소재마다 별 이름을 만들어 붙였다.

축제를 기획한 임은아 석수골 작은 도서관장은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어 지혜를 얻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10년 전부터 시작된 마을정원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방법을 떠올렸다”며 “아름다운 정원에서 책을 맘껏 읽고 즐기는 선부2동’을 목표로 삼고 마을

정원 만들기 팀과 함께 다세대 밀집지역에 마을정원 16곳을 만들었다. 마을정원과 책을 통해 마을을 이해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민 박민희(39) 씨는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제에 나왔다. 우리 동네는 마을 정원이 있고 아파트보다 다세대 가구가 많으며 자유로운 학교 분위기가 좋고 정답다. 특히 책에 관심이 많아 ‘책 읽는 부모모임’ 회원”이라며, 선부2동 주민임을 자랑스럽게 밝혔다.

노론산 명예기자\_nrssun@hanmail.net

선부3동

### ‘주민화합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성황리 개최

안산시 선부3동 체육회는 지난 10월 13일 선부초등학교에서 주민 9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부3동 주민화합 체육대회와 경로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제33회 안산시민의 날’과 ‘제22회 노인의 날’을 맞아 치러진 이번 행사는 선부3동 체육회 주관으로 선부3동 8개 직능단체 회원들이 함께 했으며 주민들의 화합 속에서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선부3동 꿈나무들의 태권도시범 공연을 시작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어르신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명랑운동회와 주민노래자랑으로 이어지면서 흥겨운 분위기

기로 행사의 절정을 이뤘다.

또한 어르신 경로잔치 시간에는 경기도립국악단 사물팀의 수준 높은 풍물놀이 공연이 펼쳐지기도 했다.

백선현 선부3동 체육회장은 대회를 통해 “주민간의 화합과 소통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경쟁을 넘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태성 선부3동장은 “행사를 도와주신 각 팀의 대표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웃음꽃 피는 선부3동 만들

기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부1동

### 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 ‘성금’ 전달



안산시 선부1동 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는 지난 18일 선부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지난 10월 13일 선부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만들기 주민협의회가 공동 주관으로 진행한 ‘선부1동 함께웃는 우리동네 스마일 페스티벌’에서 푸드존을 운영한 수익금이다.

이광심 주민협의회장은 “푸드존 운영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우려와는 달리 큰 호응을

받았다”며 “수익금을 어려운 이들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허진 선부1동장은 “이번 ‘함께 웃는 우리동네 스마일 페스티벌’ 운영 수익금 기탁은 더불어 사는 미덕을 지역민에게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백운동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반찬서비스’ 실시



안산시 백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10월 16일 ‘사랑의 반찬 나누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새마을협의회 위원 20여명은 신선한 재료를 위해 직접 장을 보고 손수 제육볶음, 계란 장조림, 오이김치 밀반찬을 만들었으며, 만든 밀반찬은 관내 복지사 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20가구에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전달했다.

이경숙 백운동장은 “반찬배달 서비스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끼니 해결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반찬을 전달하면서 안부 확인도 할 수 있어 위기상황 예방관리 차원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반찬 나누기 사업 외에 고시원 전수조사, 사랑의 브릿지 사업, 쌀·이불나눔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현장 활동 실시 공공하수처리장,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등 방문해 실태 파악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10월 17일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사진은 이날 현장 활동 중 한 장면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나정숙)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앞두고 감사 대상 부서 시설 확인 등을 위한 두 번째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0월 17일 안산 공공하수처리장과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선부동 동산로 일원 노후수도관 정비공사 현장 등 3곳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위원들이 찾은 안산 공공 하수처리장은 세포 내 효소물질을 측정해 고도 처리하는 하는 기술인 'symbio 공법'을 통해 일일 38.5만m<sup>3</sup>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어 수질 개선과 악취

저감 문제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호기성 퇴비화 처리방법으로 1일 200톤의 음식물 폐기물을 자원화 처리하고 이를 농가에 퇴비로 공급하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곳이다. 이들 두 시설은 각각 시 하수과와 자원순환과가 외부 관리 대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 수도시설과가 진행하고 있는 선부동 동산로 노후수도관 정비공사의 경우 14억8천432만여원을 들여 선부동 1157번지 일대 노후수도관 1천750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한 점검 필요성 때문에 현장활동 대상지에 포함됐다.

위원들은 이날 행감 대상 부서의 관리 시설과 공사 현장을 발 빠르게 찾아 현장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감사의 내실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민원 발생의 소지가 높은 악취 발생 문제에 대해 시가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위원들은 이보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고잔·초지동 일대의 시 공동구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시 측에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나정숙 도시환경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감사 및 상임위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날 찾은 곳들은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시설로 현장활동을 통해 파악한 정보들을 감사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는 오는 19일 감사 강평을 끝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다.

## 안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즉각 철회하라" 관련 건의안 채택하고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안산시의회가 10월 제2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송바우나 의원의 모습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가 10월 10일 열린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및 지방분권 종합계획 전면수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송바우나 의원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교섭단체 운영 지원 등이 대부분 누락되거나 지방

위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내용"이며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 제42조 제1항 제5호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의 감사와 조사를 주요내용으로 해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송바우나 의원은 "이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지방자치제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건의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 발의에는 송바우나 의원 외에도 20명의 의원이 동참했으며, 건의안에는 △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지방의회 관련 항목 전면 재검토 및 정부 임기 중 추진 가능 분야 우선 추진과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자치경찰제 등 검토 △자치조직권 및 인사권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의 법제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즉각 철회 등 다섯 가지의 촉구사항을 담았다.

송바우나 의원은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며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이후 현재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높은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널리 알릴 방침이다.

## 제251회 정례회 예결위원장에 김태희 의원·간사에 이진분 의원 선임 오는 31일까지 '2017 회계연도 결산' 등 심의



안산시의회가 10월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사진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후 위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모습으로 왼쪽부터 박태순, 김동수 위원, 김태희 위원장, 이진분 간사, 이경애, 이기환, 강광주 위원이 나란히 서있다.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태희 의원이, 간사에 이진분 의원이 선출됐다.

의회는 10월 10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본회의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강광주, 이기환, 김동수, 박태순, 이경애 의원이 선임됐으며, 이들 위원들은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2017 회계연도 결산'과 '2017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들은 이번 예결특위에서 2017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이뤄지는 만큼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희 예결위원장은 "결산은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투입된 사업과 정책에 대한 평가 과정이므로 작은 부분도 허투루 할 수 없다"며 "동료 예결위원들과 합심해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고, 이진분 간사도 "위원장님을 도와 예산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독자 투고

### 해솔길, 소나무 향기

대부도 바닷가에 나가면  
발목부터 감아 오르는 갯내음  
그 안에 아름다운 낙조도 보인다

햇살 일렁거리는  
소주잔 위에서  
파도처럼 넘실넘실  
석양빛에 물결쳤다

펜션가의 유리창 앞에  
해송(海松) 길의 모래사장  
나무들은 비스듬히 누인 체  
바닷길을 열고 있었다

오늘도 안산 대부도 해솔길  
관광객의 발걸음 박자 맞추며  
소나무 향기 안에 서있네

오손도손 발걸음  
가족들 얼굴은  
꽃 같은 미소 그려지고

· 황찬근



독자 투고

### 이제야 깨닫는 부모님의 자식 사랑 표현

1992년. 어느덧 20년을 훨씬 지난 세월이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내 생애 처음으로 느꼈던 자유와 환희가 떠오른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1남3녀 우리의 통금 시간은 9시 30분이었다. 사회생활로 바쁜 언니들도 예외는 없었다. 어떻게 연애를 통해 결혼까지 할 수 있었을까 싶다. 버스에서 내린 후 숨 한 번 쉬지 않고 집까지 내달려야 했던 우리들. 그리고 1분만 늦어도 대문을 잠그고 마당에서 지키고 서 있는 아버지. 세 딸을 둔 아버지로서 딸들 걱정에 정한 규율에 순종하는 게 편했을까? 우리는 아침밥을 꼭 먹은 후 학교나 회사로 가야했고, 친구나 친척집에서의 1박은 결코 용납 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통금 9시30분은 내 나이 28세까지 지켜졌던 우리집 규율이었다.

대학 2학년. 학교 추천으로 중국에 가야 할 기회가 생겼다. 한·중 교류가 없었던 당시, 한 달 동안의 중국 생활은 외국에 간다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었다. 부모님은 학교에서 보내주는 일이라 반대할 수 없었고, 나는 자유라는 그 자체를 맘껏 느낄 수 있었다. 통금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관광도 즐기고 본토 음식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밤늦도록 나이트클럽이나 볼링장까지 돌며 마시고, 떠돌고, 야경도 구경했다. 늘 시간에 쫓겨 바둥바둥 시계를 보며 집에 들어가기 급급했던 내게 찾아 온 첫 해방의 시간이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던 통금 시간 그리고 억압과 규율. 그러나 부모가 된 지금, 아이의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나도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물론 아버지만큼 엄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정한 규율 또한 우리 아이에게 벗어나고 싶은 굴레가 아닐는지. 아이는 또 다른 해방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 이제야 고백한다. 당시의 억압과 규율은, 우리 부모님만의 독특한 자식 사랑 표현법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음을. 부디 내 아이도 그렇게 느끼기를 기도한다.

· 박정화



독자 기고

### 바자회를 통해 깨닫는 나눔의 행복

며칠 전 아이들 학교에서 주최하는 바자회에 아내와 함께 참여했다.

우리 말고 다른 학부모들은 저마다 사연을 간직한 기부 물품들로 양손이 가득했다. 몇 번 입히지도 못했는데 옷자란 아이에게 작아져 버린 옷가지를 보관하다 가지고 나온 학부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의류와 학용품, 책 등을 짊어진 학부모들은 진열대에 종류별로 물품을 올려놓기 바빴다. 아이들은 “이 옷 미진이 꺼다”라는 등 서로 서로 아는 체하며 즐거워했다.

떡볶이, 김밥 등 간식용 먹을거리를 파는 코너의 인기가 단연 높았다. 아이들은 먹으랴 사고팔 거리들을 구경하랴 여념이 없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근심이라는 게 없어 보였다. 이렇게 밝고 맑은 얼굴을 평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아이들 바지 2벌과 책 3권을 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와 빈대떡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진행된 바자회의 판매 수익은 고스란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인다고 한다. 바자회는 아이들이 물건의 소중함을 느끼며 절약하는 소비 습관을 길러주는 인성 교육의 장이면서, 또한 나눔 문화 확산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더없이 좋은 교육의 기회

이기도 하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느끼게 해줄까’ 고민했었지만, 큰 욕심 없이 ‘바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만 알려줬다. 다행히 금세 이해했는지 자기들 용돈을 사용하겠다고 한다. 기특하고 고마웠다.

프랑스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는 “이 세상에서 참다운 행복은 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것이다.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다”라고 했다.

행복을 함께 나누고 널리 전달하고자 마련한 바자회에 참여한 학부모들, 그리고 그 행사를 통해 도움을 받는 분들 모두 행복하기를 소망한다.



· 김만석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10.12. ⇨ MBC 생방송 오늘저녁! '김홍도 축제 특집'  
10.18. ⇨ SBS 12뉴스 '안산시, 대부도 개발사업 EU에 투자요청'



맛있는 도시 안산 속으로~

**페이스북 이벤트!**

**나만의 9경, 같이 구경해요~**



- ◇ 응모기간 : ~ 10.31.
- ◇ 주제 : 안산의 관광명소, 풍경, 공공시설물, 일상생활 및 인물 (안산시 배경) 등
- ◇ 참여방법 : 혼자만 알고 있거나 가까운 안산 관련 관광명소 또는 포토존 등 개인이 찍은 사진을 '나만의 안산 9경'이라는 테마로 응모

-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ktg310@korea.kr)
- ◇ 당첨자 발표 : 2018. 10. 31.(수)
- ◇ 이벤트 경품 : 나만의 안산9경(응모사진 9장) 엽서 제작, 문화상품권
- ◇ 문의 : 안산시청 공보관(031-481-2039, 3759)

**'안산 에너지 비전 2030' 심포지엄**



- ◇ 일시 : 2018. 11. 15.(목) 14:00 ~ 16:00
- ◇ 장소 : 시청 대회의실 (민원동 2층)
- ◇ 참석대상 : 에너지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 ◇ 주최/주관 : 안산시
- ◇ 주요내용 : 민선7기 에너지 시책 추진방향,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역할과 과제 등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 ◇ 일시 : 2018. 11. 1.(목) 14:00 ~ 16:00
- ◇ 장소 : 한양대 게스트하우스 3층
- ◇ 참여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 구직자
- ◇ 주최/주관 : 안산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 내용 :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구인 정보와 면접 기회 제공, 인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구인업체에 인력 채용 기회 마련

◇ 문의 :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882)

**창업문화 조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2018 SUFIA 안산 스타트업 페스티벌**



- ◇ 행사일시 : 2018. 11. 1.(목) 11:00 ~ 19:00
- ◇ 장소 : 한양대 ERICA 캠퍼스 일대
- ◇ 주최 : 안산시 · SUFIA
- ◇ 주요내용 : 안산시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지원기관 소개, 유공자 표창, 창업특강&토크콘서트, 창업기업 홍보,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채용(취업) 박람회, 창업마켓, 푸드트럭 운영 등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 서비스 안내**

최근 라돈으로 높아진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간이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대여장소 :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책 읽는 안산 / 11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아동



**한밤중 톰의 정원**

저자 필리파 피어스 / 출판사 창작과비평사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마음의 시간'에서 만난 톰과 해티의 이야기.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환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동생 피터가 흥역에 걸리자 톰은 흥역을 피해 이모네 집으로 간다. 헌데 그 집 현관바닥에는 차가운 돌이 깔려있고, 퀘퀘한 냄새에 으스스한 한기마저 느껴지는데. 괴종시계가 열세 번 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청소년



**시간을 파는 상점**

저자 김선영 / 출판사 자음과모음

제1회 자음과모음 청소년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철학적이고 관념적일 수 있는 시간의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이 소설은 추리소설 기법으로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끌어들이며 긴장감을 끝까지 자아낸다. 지금의 이 순간을 또 다른 어딘가로 안내해주는 시간. 스스로가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면...

성인



**내일**

저자 기욤 뫼리 / 출판사 밝은세상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허버트대 철학교수 매튜 사피로. 어느 날 벼룩시장에서 중고 노트북컴퓨터를 구입한 그는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는 여자의 사진과 아이디어를 보게 되고 사진을 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메일을 보낸다. 그 일을 계기로 아이의 주인인 와인감정사 엠마와 채팅을 통해 대화를 시작하게 된 그는...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

# 소방안전 지켜주세요!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내가 먼저 안전을 실천하고 지켜요.

**1** 소방차가 지나가면 도로 가장자리로 붙어 양보해요!

**2**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주차는 절대 금물!

**3** 긴급차량의 현장도착 시간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보호에 큰 영향을 미쳐요!